

# 수원시 미륵당 마을 장승제

〈조사 보고서〉



수원문화원

# 수원시 미륵당 마을 장승제

## 〈조사 보고서〉

책임조사·집필 : 허 용 호

보조조사 : 김 정 경

수 원 문 화 원

## 〈차 례〉

### I. 조사 목적

### II. 수원 지역의 옛 장승

- 1) 『수원군읍지』에 기록된 이정표 장승
- 2) 〈변강쇠가〉에 나타난 지지대 장승
- 3) 구술 전승되는 장승과 장승터

### III. 미륵당 마을 장승의 위치와 형태

### IV. 미륵당 마을 장승 관련 제의 절차

- 1) 제의 준비 과정
  - (가) 당주·제관·축관 정하기
  - (나) 제의 비용 마련과 제물 준비
- 2) 장승제
  - (가) 장승 만들기
  - (나) 장승 제사
- 3) 산신제
  - (가) 서낭나무 제사
  - (나) 산신 제사
- 4) 음복

### V. 미륵당 마을 장승제 계승을 위한 제언

- 1) 미륵당 마을 공동 제의의 현재 상황
- 2) 미륵당 마을 공동 제의의 계승 방향
  - (가) 시연을 통한 원형 그대로의 복원
  - (나) 정조 대왕 능행차 연시와 연결짓는 창조적 계승

\* 부록: 미륵당 마을 장승 관련 현지 조사 자료

## I. 조사 목적

우리 민족 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중요하게 꼽히는 것 중의 하나가 장승이다. 장승의 한자어를 보면 ‘長柵’으로 쓰이며 ‘긴 나무(長) 꾀말(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장승은 단지 ‘긴 나무 꾀말’로만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은 아니다. 우리의 오랜 문화 전통 속에서 장승은 마을의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마을신, 마을의 사방을 지켜주는 방위신, 마을의 재앙을 막아주는 수호신, 길을 수호하는 노신, 길의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 등의 역할을 하여왔다. 우리 민족 문화의 한 특징을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상징물의 하나로 기능을 해왔던 것이다.

그 동안 장승에 대한 조사는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웬만한 지역의 장승은 그 복원과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롭게 만들어지고도 있다. 그런데 유독 수원 지역만은 장승에 대한 복원과 전승이 순조롭지가 않다.

수원 지역에도 다른 지역 못지 않게 장승이 존재하고 있었고, 특히 정조 대왕의 능행차 행로와 관련된 장승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이 조사 작업은 장승에 대한 복원과 전승이 미비한 수원 지역에 장승 관련 민속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자리한다.

이 보고서는 수원 지역의 장승에 대한 조사 작업의 첫 걸음으로 장안구 파장동 미륵당 마을의 장승을 조사한다. 미륵당 마을의 장승을 선택한 이유는 이곳이 갖는 상징적 의미 때문이다. 마을의 지리적 위치 상 수원의 북쪽 끝에 위치하는 마을로 서울에서 수원으로 들어오는 관문이다. 수원으로 들어오는 첫 길목이라는 점에서 수원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II. 수원 지역의 옛 장승

### 1) 『수원군읍지』에 기록된 이정표 장승

광무 3년(1899)에 나온 『수원군읍지(水原郡邑誌)』를 보면 정조 대왕의 필로를 따라 다음과 같이 장승들이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 지지대 장승 : 지지대 고개 마루에는 지경이 시작된다는 장승을 세우고 또 표석을 세워 지지현 이라고 새겼다.
- 일용리 장승 : 일용리는 괴목정 다리에서 수리(數里)요, 지지대 고개에서 5리 쯤에 장승이 세워져 있다.
- 기하동 장승 : 만석거에서 100여보 일용리에서 5리에 장승이 섰다.
- 매교 장승 : 행궁에서 5리에 장승을 세웠으니 재간고개에서 용봉이 5리이다.
- 만화현 장승 : 매교에서 100여보요, 행궁에서 5리이며 장승을 세웠다.
- 건장동(建章洞) 장승 : 만화고개로부터 5리이며 장승이 섰다.
- 용봉(甕峰) 장승 : 건장동에서 5리이며 장승이 섰다.
- 유침현 장승 : 처음 이름은 까치 고개인데, 을묘년에 고쳤으며 고개에 못가서 100보 쯤에 장승이 섰으며 용봉까지는 5리이다.
- 안녕리 장승 : 유침현 못미치어 장승 세운 곳에서 5리에 장승을 세웠고 큰 마을이 있다.
- 능원소동구(陵園所洞口) 장승 : 안녕리에서 3리이며 장승을 세웠다.

이러한 장승들은 마을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모셔졌다기 보다는 이정표 구실을 하는 장승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조 대왕의 능행차 길을 안내하는 구실을 했던 장승들이었던 것이다.

## 2) <변강쇠가>에 나타난 지지대 장승

조선 후기에 널리 공연이 되고 유행했던 판소리이자 판소리계 소설인 <변강쇠가>를 보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여러 장승들이 등장한다. '경기 노강(鷲江) 선창목 대방 장승', '사근내 공원 장승', '살곶이 공원 장승', '고양 흥제원 장승', '양주 다락원 장승', '단천 마천령 상봉 장승', '압록강 갯 씻는 장승', '해남 관머리 장승' 등과 함께 '수원 지지대 장승' 이 나온다.

이 '수원 지지대 장승' 은 <변강쇠가>에서 '유사(有司)' 라는 직함까지 갖고 있다. 유사란 옛날 한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던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지지대 장승' 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장승들 중에서 몇째 안가는 주요한 역할을 하는 장승으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은 '수원 지지대 장승' 이 자리한 지리적 위치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옛날 지지대 고개 길이 갖는 지리적 위치가 전라도, 경상도로 대로가 통하는 길목이었으므로

‘수원 지지대 장승’이 영호남으로 내려가는 통문을 맡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변강쇠가〉에 나오는 ‘수원 지지대 장승’은 앞서 『수원군읍지』에 기록된 ‘지지대 장승’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부터 화성부의 경계가 시작된다는 ‘광주종경(廣州終境) 화성초경(華城初境)’의 장승을 고개 마루에 세웠다는 기록으로 보아 옛 수원 혹은 화성 지역의 이정표 및 수문장 역할도 이 장승이 맡았음을 알 수 있다.

### 3) 구술 전승되는 장승과 장승터

마을 사람들의 옛 기억과 지명 유래 등을 통하여 전해지는 수원 지역의 장승들은 다음과 같다.

- **긴등 장승백이** : 긴등은 성균관대학교를 서편에 둔 주택가 지역이다. 산등성이가 길어서 붙여진 지명인 긴등에는 정조 대왕의 옛 필로의 노정을 표시한 장승이 있어서 장승백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 **울전동 도당집 장승** : 현 성균관대학교 실습실 뒤에 도당집이 있었는데, 그 옆에 장승이 서 있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 갈 때, 돌을 올려놓고 지나가곤 했다고 한다.
- **천천동 장승백이** : 천천동 460-20 번지 일대인 천천 아파트 단지 북쪽 끝 지역을 장승백이라고 부른다. 옛날부터 이 지역에는 장승들이 서 있어서 이러한 지명이 붙게 되었다고 한다.

## Ⅲ. 미륵당 마을 장승의 위치와 형태

제보자들에 의하면 미륵당 마을에는 옛날부터 마을 남쪽과 북쪽에 장승들이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

이봉희 : 지금 두 길로 올라가다 보면은 노송길로 올라가다 보면은 산업도로하고 마주 치는 데 있죠. 그 소나무 하나 멋있는 거 있는데.

조사자 : 예 그 삼풍 농원 가는 데...

수원시 미륵당 마을 장승제

송명옥 : 제일 큰 소나무 있는데.

이봉희 : 예, 제일 큰 소나무 있는데, 거기서 이저 양쪽에다가 장승을 세우고, 제사를 올리고.

조사자 : 어느 쪽, 양쪽이면은 남자는? 남자 여자 따로?

이봉희 : 남자가 소나무 쪽, 남자는 동쪽, 여자는 서쪽. 이렇게 세우고 거기다 제를 올려드리고, 그 제물을 갖고 올라가서 올라가다 보면은 지지대 고개 올라가다 보면은 효행 가든 막 지나면서 삼성 건설이 하기 위해서 공터 지금 남은 자리 거기에서...

조사자 : 효행 기념관 바로 전?

송명옥 : 예 조금 올라가서.

이봉희 : 응 조금 못 올라가서. 거길 작은 고개라 그러거던. 고개 이름이 작은 고개. 그 작은 고개 밑에 가서 거역시 동, 서쪽으로다 끌고 절을 올리고 내려와요.



▲미륵당 마을 남쪽 장승이 있었던 자리 (○표 한 부분)

남쪽 장승들은 현 삼풍 가든 주변 큰 소나무가 있는 길 양쪽에서 있었다. 길 오른쪽에는 ‘남방축귀천하대장군(南方逐鬼天下大將軍)’이라 쓰여 있는 장승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길 왼쪽에는 ‘남방축귀지하여장군(南方逐鬼地下女將軍)’이라 쓰여 있는 장승이 자리하고 있었다.

북쪽 장승들은 현 효행 기념관 바로 전 작은 고개 밑 길 양쪽에 자리하고 있었다. 길 오른쪽에는 ‘북방축귀천하대장군(北方逐鬼天下大將軍)’이라 쓰여 있는 장승이 자리하고 있었고, 길 왼쪽에는 ‘북방축귀지하여장군(北方逐鬼地下女將軍)’이라 쓰여진 장승이 자리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북쪽 장승이 앞서(수원군읍지와 <변강쇠가>)에서 언급된 지지대 장승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장승에 쓰여진 문구로 볼 때



▲미륵당 마을 북쪽 장승이 있었던 자리 (○표 한 부분)

명칭	재료	부속물	눈	코	입	귀	수염	머리	몸체
북방축귀 천하대장군	나무	없음	올라간 눈	긴 코	벌린 입	없음	없음	복두	앞은 평평하고 뒤는 원주
북방축귀 지하여장군	나무	없음	쳐진 눈	긴 코	벌린 입	없음	없음	족두리	앞은 평평하고 뒤는 원주
남방축귀 천하대장군	나무	없음	올라간 눈	긴 코	벌린 입	없음	없음	복두	앞은 평평하고 뒤는 원주
남방축귀 지하여장군	나무	없음	수평 눈	긴 코	벌린 입	없음	없음	족두리	앞은 평평하고 뒤는 원주

동일한 장승이라 추정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미륵당 마을의 장승들은 매년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그 형태는 항상 동일한 것이 아니었지만, 대체로 그 재료는 오리나무가 선택되었으며, 그 크기는 2-3m 정도였다. 제보자들의 제보와 1980년대에 찍은 사진을 토대로 장승의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정리된 장승들의 형태를 보면 ‘북방축귀천하대장군’ 과 ‘남방축귀대장군’ 은 올라간 눈과 복두(과거에 급제한 자가 홍패를 받을 때 쓰는 관)를 쓰고 있는 남자의 형상을 띠고 있고, ‘북방축귀지하여장군’ 과 ‘남방축귀지하여장군’ 은 족두리를 한 여자의 형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형상적 특징을 제보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염성민 : 깎아서, 글쓰기 좋게 반듯하게 깎고, 그 다음에 인저 얼굴, 여기다가 귀 갖다가 꽃고

조사자 : 남자 여자 따루?

염성민 : 예, 여자 다르구, 남자, 다르구, 여자는 뽕달구,

조사자 : 아 사모 관대 쓴 것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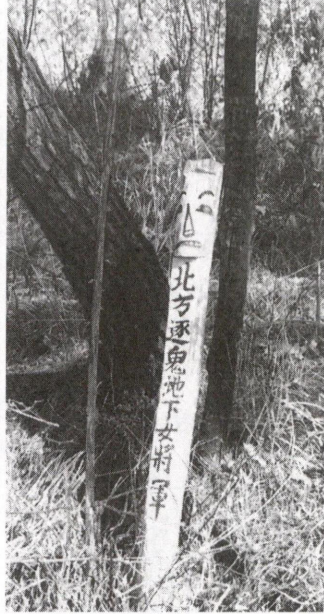
염성민 : 예, 그렇지, 여자는 그냥.

조사자 : 거기에 뭐라고 써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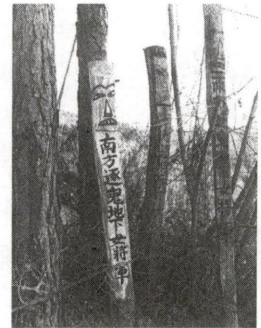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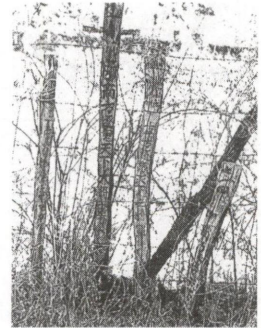
염성민 : 천하대장군.

조사자 : 여자는 지하 여장군.

\* 1980년대에 찍은 미륵당 마을 장승 사진



◀ 북방축귀천하대장군(좌) 과 북방축귀지하여장군(우)



▶ 남방축귀천하대장군(상) 과 남방축귀지하여장군(하)

염성민 : 그렇지.

이봉희 : 장승은 오리나무를 비는 이유가 연장이 잘받아. 말르면은 못도 안 들어가는데, 날 나무적인 연장을 잘 받아요. 껍데기 까고...

송명옥 : 그래도 그 나무가 이런 나무 갖지 않게 깎으면 노래요.

이봉희 : 노르스름해지죠, 깎으면, 그 배 이렇게 쪽 깎고, 머리 부분 이렇게 인저 쪽 깎아서 인저 남자는 갓을 쓰니까 갓뿔을 끼고 얼굴을 그리고 밑에다 천하지대장군이라고 쓰고, 여잔지하여장군이라고 쓰고, 그렇게 썼던 거예요.

이상에서 살핀 미륵당 마을의 장승들은 그 자리하고 있는 위치나 형태로 보아 마을의 남북을 지키고 서서 마을의 액을 막거나 쫓아내는 역할을 하던 장승들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은 다음과 같은 제보자의 언급에서도 입증된다.

조사자 : 왜 장승을 만들어서 모셨을까요?

이봉희 : 장승은 맨든 이유는 마을에 고사가 있을 적에는 부정한 사람이 드나들면 안되거든. 그러니까 마을 입구에다가 아래 위 입구에다가 부정을 막는거지. 우선 부정을 막기 위해서 먼저, 일단 부정을 막어야...

송명옥 : 나쁜 일을 못 들어오게 장승으로 막아 놓는 데는 거야.

이봉희 : 지금 어느 부락이든지 장승 만들어 놓 것이 마을을 지켜 달라고 맨든 것이거든. 딴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알기도 그렇게 알구 있어요.

#### IV. 미륵당 마을 장승 관련 제의 절차

미륵당 마을의 장승들은 아무렇게나 막 세워진 것은 아니었다. 장승들은 일년에 한번 씩 치루어 지는 마을 공동 제의 과정에서 세워졌다. 마을을 지켜주는 신에 대한 제사인 미륵동 마을의 마을 공동 제의는 매년 음력 10월 1일에 벌어졌다. 이 공동 제의에 대하여 제보자들은 아주 정갈하고 엄격하게 금기를 지키면서 지내왔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제보자들의 언급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부정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젊은 여자가 있는 집은 대개 당주를 하지 않는다.
- 당주 집에는 황토를 뿌리고 인줄을 맨다.
- 여자들은 일체 참석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떡 만들 때에도 남자들이 만든다.
-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절구와 시루를 써서 떡을 찐다.
- 두부를 만들 때에도 맷돌에 콩을 직접 간다.
- 마을 사람들에게 걷는 쌀도 부정이 있는 집 쌀과 부정 없는 집 쌀로 나눠서 걷는다.
- 부정 없는 집 쌀로 제사 지낼 떡을 만들고, 나머지 쌀로는 그날 점심 저녁을 지어 먹는다.
- 장승 앞을 지날 때에는 말을 타고 지나가지를 못하고 반드시 말에서 내려 걸어서 갔다.
- 산에서 지내는 산신제에서는 집에서 가져간 수저를 쓰지 않고, 새를 꺾어서 젓가락으로 사용한다.
- 산신제를 지내지 않으면 우환이 번졌는데, 산신제를 지내고 나니 없어졌다. 모두들 호랑이 산신이 노해서 그렇다고 했다.
- 산신제가 끝날 때까지 부정한 사람들이 못들어 오게 했는데, 마을에 일단 들어와도, 산신제가 끝나야 내보냈다.

미륵당 마을의 공동 제의 절차는 크게 1) 제의 준비 과정, 2) 장승제 3) 산신제로 나눌 수 있다. 이 각 절차는 다시 세부 절차로 나누어지는데 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 1) 제의 준비 과정

### (가) 당주 · 제관 · 축관 정하기

음력 10월 1일 이전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해의 생기 복덕을 보아서 제의를 주관할 사람들을 뽑는다. 회의는 보통 제의 5-6일 전에 열리는데, 제의 음식을 준비하는 당주, 절을 하고 소지를 하는 제관, 축문을 읽는 축관 등이 이때 정해진다.

제의 음식을 준비하는 당주의 경우 가장 엄격한 과정을 거쳐 정해진다. 일단 그 해의 생기복덕이 맞아야 하고, 집안에 부정한 일이 없어야 하며 부부가 함께 생존한 사람이어야만 한다. 소지를 하는 제관이나 축문을 읽는 제관의 경우는 그 해 생기복덕이 맞는 사람들 중에서 많이 배운 사람이 보통 정해진다.

이렇게 마을 공동 제의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정해지면, 제의 준비를 하며 엄격히 금기를 지킨다. 집 앞에 황토 뿌려 놓기, 목욕재계 등은 물론이고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도 보지도 않는다.

염성민 : 인저 당주 정할래면, 책을 그 한 닷새 앞두고, 당주를 정하는 데요. 책을 전부 책 봐요. 책을 다 봐 가지고, 거기서 제일 좋은 사람을 뽑고, 거 부정 없는 집을 당주 집 정하구, 또 인지 제일 좋은 사람이 소지 올리는 거여. 그런거지. 산에 올라가서.

조사자 : 그렇게 해서 당주가 정해지머는...?

염성민 : 인저, 당주가 정해지면, 누구네가 당주다 그러면, 내일 고사 지낼 것 같으면, 거기다가 황토흙, 흙 갖다가 부정 있는 사람 못 들어오게, 들어오지 말라고, 황토흙 갖다가. 양쪽에 다 문에다 맨다구.

조사자 : 금줄도, 금줄은 안 치나요?

염성민 : 응응, 금줄은 안하고, 그전에 이게 문이면, 여기다 이 양쪽에다 황토흙을 놓는다구. 그러면, 동네 사람은 다 알잖아요, 동네 사람은, 산신제 지내는 거, 누구네 당주래는거. 그러기 땀에 부정한 사람은 가지도 않아요. 인제 또 떡두 남자들이 인제 다 허는거, 해요.

조사자 : 당주는 그렇게 준비하고, 당주는 목욕 재계하고?

염성민 : 그렇지, 내일 지낼 것 같으면 전날, 목욕 재계하고.

조사자 : 부부가 다?

염성민 : 그렇지, 부부만 다 올라가니까.

조사자 : 그러니까, 유일하게 여자는 당주 부인만 (올라가는 거죠)?

염성민 : 응. 산에 올라가서 녹음 지어주구, 그러는거야. 그러구 인저 여기 소지 올리는 사람이 저 거하고, 당주는 인저 관계가 없어요. 여긴.

조사자 : 소지 올리는 사람이 제관이죠?

염성민 : 응, 책 봐 가지구 제일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소지 올리구, 축...

조사자 : 축은 어떤 거였어요?

염성민 : 축도 배운 사람이 읽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언저든지 축을 읽었다구.

송명옥 : 우스운 거 곁에두 산신제는 무척 정갈해요.

이봉회 : 그 떡을 해두요...

송명옥 : 제사 지내는 집두 집안에 부정이 없어야 돼요. 부정 있으면 차례두 못 가는 거야. 여자가 혹시 멘스한다 그래도 안돼요.

이봉회 : 그 생기 복덕이래는 거예요.

송명옥 : 그런 것도 가려야 돼지, 덮어놓고 아무나 더럽게 하믄 안돼는 거예요.

이봉회 : 젊은 여자들이 될 수 있으면 없는 집을 택해서, 왜냐 그게 있으니까. 그게 있으니까 그렇구 대개 생기복덕을 딱 가려서 제수집을 정해놨다 그러면은 그 집에는 제삿날 저녁 전까 지 아무도 들어가질 못해요.

송명옥 : 문 앞에다가 황토 흙으로 사람 못 들어가게 해놔요.

## (나) 제의 비용 마련과 제물 준비

제의 비용은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분담한다.

조사자 : 그 산신제 지낼 때요, 드는 비용은 어떻게 모았어요?

염성민 : 그 때는...

조사자 : 그 돈으로 내는 건지, 쌀로 내는 건지?

염성민 : 쌀 한 되씩 걷구.

조사자 : 집집마다요?

염성민 : 이제 그날 돼지를 사오는 거니까, 돈을 걸어 가지구 가서 사오구 그랬다구.

조사자 : 거의 똑같이 집집마다 돈을 내는 거죠?

염성민 : 그렇죠. 다 내요.

제의 비용 마련은 마을 유지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마을 사람들이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쌀과 돈을 걷는다. 그런데 이때에도 부정을 멀리하는 엄밀함이 드러난다.

이봉희 : ... 그래 마을에서 지도자급들은 당고사 열흘 전서부터 호호 방문하면서 이번 당고사 참석을 해줄거나 안해줄거나 확인을 받아요. 확인을 받고 제사 이틀전날 농사짓는 집에서 쌀을 한 뒷박이고 두 되고 쌀 좀 주시오 그러면 얼마 준다 안 준다 이런 게 없어요. 자기가 한 뒷박 퍼주고 싶으면 한 뒷박 퍼주고 두 뒷박 퍼주고 싶으면 두 뒷박 퍼주고 농사 좀 많이 짓고 그런 집에는...

송명옥 : 쌀 걷으러 댕길 때두 자루 두 개요. 부정 있는 집 쌀 따로, 부정 없는 집 쌀 따로. 부정 없는 집 쌀로다 거기 다 가는 거지 부정 있는 집 쌀은...

이봉희 : 부정 있는 집 쌀은, 거 부정 없는 집 쌀로 당고사 가고, 부정 있는 집 쌀은, 거 아침부터 모여서 하니까 점심을 해먹어야 되고, 또 저녁도 산에서 내려오면 시장들 하니까, 저녁도 한술씩 떠야되고, 그래 국물에다가 한술씩 뜨라고 밥을 하고 그래요.

이러한 제의 비용 마련의 특성은 부정을 멀리하는 엄밀함이 나타나는 동시에 부정이 있는 집이라도 마을 제의에 함께 참여하게 한다는 공동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제의에 올려질 제물은 삶은 돼지 고기, 복어, 떡, 밤, 대추, 조라술, 노그메 등이 쓰이는데, 그 준비는 당주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노인과 마을 남자들이 주로 한다. 젊은 여자들은 피부정(월경)에 쉽게 노출된다고 해서 보통 제외된다. 제보자들이 말하는 제물 준비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염성민 : ... 인제 또 떡두 남자들이 인제 다 허는거, 해요.

조사자 : 떡 만드는 것두요?

염성민 : 응. 떡방아두, 여기 와서, 기계로 안 빵구, 절구로, 절구 빵아가지구, 그래 가지구 쌀 한 말, 떡 해는 거니까 그 세 시루 짚 걸 딱 노나 하는 거야. 장승 지낼건 두 뒷박, 산에 가는 건 많이, 많이 가져가야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산에 건 많지. 그래요.

조사자 : 당주는 그렇게 준비하고, 당주는 목욕 재계하고?

염성민 : 그렇지, 내일 지낼 것 같으면 전날, 목욕 재계하고.

조사자 : 부부가 다?

염성민 : 그렇지, 부부만 다 올라가니까.

조사자 : 그러니까, 유일하게 여자는 당주 부인만 (올라가는 거죠)?

염성민 : 응. 산에 올라가서 녹음 지어주구, 그러는거야. ...

## 2) 장승제

### (가) 장승 만들기

마을 공동 제의를 지내는 음력 10월 1일 아침이 되면 마을 남자들이 미륵당 건너편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승을 만들 나무를 베어온다. 장승 제작에 사용되는 나무는 보통 오리 나무가 쓰이는데, 이는 이 나무가 오리나무를 쓰는 이유는 이 나무가 '날 나무' 일 때에는 연장이 잘 받지만, 마르면 못도 안 들어갈 만큼 단단해지기 때문이다.

염성민 : 장승을 갖다가, 산에서 나무를 베가지구, 두 개 베어다가, 딱 깎아서, 깎아 가지구 인저 맨 드는거죠.

조사자 : 그 나무는 어떤 나무를...?

염성민 : 소나무, 저 오리나무, 닥치는 대로 봐서 좋은 걸로,

조사자 : 몇 년 이상 된 나무 뭐 그런건...?

염성민 : 하여튼 굵어야죠.

조사자 : 며칠 날 산에 올라가서 장승...

염성민 : 장승은, 시월 초하루 날이 산신제 지내는 날이에요. 그날 아침에 올라가서 베어다가 그 날 깎아서 그날 지내요.

이봉희 : ... 일부 사람들은 산에 가서 오리나무를 베어다가 장승을 깎아요.

조사자 : 그 산 어디 앞에 있는 산?

송명옥 : 예. 그 앞에 산.

이봉희 : 미륵 법화당에서 마주 건너다 보이는 산마루. 신작로 건너서 산마루...

조사자 : 오리나무?

이봉희 : 응, 저 오리나무를 베어다가, 장승을 깎어요...

조사자 : 그 장승을 만드는 방법이요. 그걸 자세하게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봉희 : 장승은 오리나무를 베는 이유가 연장이 잘받아. 말르면은 못도 안 들어가는데, 날 나무적엔 연장을 잘 받아요. 꺾데기 까고...

송명옥 : 그래도 그 나무가 이런 나무 갖지 않게 깎으면 노래요.

수원시 미륵당 마을 장승제

이렇게 굵고 좋은 오리나무를 택하여 마을로 갖고 오면 당주 집에서 본격적인 장승 제작에 들어가게 된다. 당주 집에서 장승을 만드는 이유는 당주 집이 마을에서 가장 부정이 없고 정갈한 지역이기 때문이라 한다.

조사자: 이쪽 남쪽에다가 장승을, 그러니까 당주 집에서 장승을 다 만드는 거죠?

염성민: 그렇제, 그 집에서 다. 부정이 없으니까 그 집에서 다 하는 거지.

장승 제작은 손재주가 있는 남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조사자: 재목을 구해가지고 와서, 당주 집에 쪽 모여서, 깎고,

염성민: 깎아서

조사자: 그건 아무나 좀 잘 만드는 사람들이 몇몇이 모여서...?

염성민: 그렇지요. 그것도 그림 잘 그리고, 붓글씨 잘 쓰는 사람이 해야 이걸 다 쓰지.

조사자: 직접 같이 만드시고 그러셨죠?

염성민: 나는 거 안 맨들구, 맨드는 건 딴 사람들이, 목수, 기술 좀 있구, 그런 사람들이 다 맨들구.

조사자: 손재주 좋고 그러신 분들이... 그 만들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있고, 남자들...

염성민: 남자들 모여서 그날 점심. 점심들 먹구 그러니까 다들 와서. 그날은 하루 노는날이에요.  
하루 놀어요.

조사자: 모여서 장승을 만들고,

염성민: 만들구 점심덜 먹구.

이렇게 마을 공동 제의 날 아침부터 오후까지 마을 남자들은 당주 집에 모여서 장승을 만든다. 장승의 직접적 제작은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지만, 그 주변에 마을 남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제작 과정을 도와줌으로써 사실상 마을 남자들 거의 모두가 장승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장승 제작은 우선 오리나무의 껍질을 벗기는데, 이는 얼굴을 그리고 글씨를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제보자들이 말하는 구체적인 장승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조사자: 아 그날. 보통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염성민: 이 정도(양 팔을 펼쳐 보인다),

조사자: 만드는 과정은?, 자세하게

염성민: 깎아서, 글쓰기 좋게 반듯하게 깎고, 그 다음에 인저 얼굴, 여기다가 귀 갖다가 꽃고

조사자 : 남자 여자 따루?

염성민 : 예, 여자 다르구, 남자, 다르구, 여자는 뽕달구,

조사자 : 아 사모 관대 쓴 것 같이.

염성민 : 예, 그렇지, 여자는 그냥.

조사자 : 거기에 뭐라고 써요?

염성민 : 천하대장군.

조사자 : 여자는 지하 여장군.

염성민 : 그렇지.

이봉희 : 장승은 오리나무를 비는 이유가 연장이 잘받아. 말르면은 못도 안 들어가는데, 날 나무적엔 연장을 잘 받아요. 껍데기 까고...

송명옥 : 그래도 그 나무가 이런 나무 갖지 않게 깎으면 노래요.

이봉희 : 노르스름해지죠, 깎으면, 그 배 이렇게 쪽 깎고, 머리 부분 이렇게 인저 쪽 깎아서 인저 남자는 갓을 쓰니까 갓뿔을 끼고 얼굴을 그리고 밑에다 천하지대장군이라고 쓰고, 여잔 지하여장군이라고 쓰고, 그렇게 썼던 거예요.

조사자 : 이 장승 만들고 그럴 때 다른 행사나 그런 건 없었어요, 뭐 노래 부른다거나...?

송명옥 : 그런 건 없어요.

이렇게 남자 장승 2기(남방축귀천하대장군, 북방축귀천하대장군)와 여자 장승 2기(남방축귀지하여장군, 북방축귀지하여장군)가 다 만들어지면, 오후 네 시 전후에 시작되는 장승 제사 때까지 당주 집에 보관된다.

## (나) 장승 제사

장승 제시는 보통 오후 네 시 전후에 시작된다. 장승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 제보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조사자 : 왜 장승을 만들어서 모셨을까요?

이봉희 : 장승은 맨든 이유는 마을에 고사가 있을 적에는 부정한 사람이 드나들면 안되거던. 그러니까 마을 입구에다가 아래 위 입구에다가 부정을 막는 거지. 우선 부정을 막기 위해서 먼저, 일단 부정을 막어야...

송명옥 : 나쁜 일을 못 들어오게 장승으로 막아 놓는 데는 거야.

이봉희 : 지금 어느 부락이든지 장승 맨들어 놓 것이 마을을 지켜 달라고 맨든 것이거든. 딴 뜻은 아니예요. 우리는 알기도 그렇게 알구 있어요.

이렇게 장승 제사는 마을 양쪽 입구에 서서 부정을 막고 마을을 지켜달라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장승에 쓰여 있는 '축귀(逐鬼)'라는 글귀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장승 제사는 우선 마을 남쪽에 장승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마을 사람들이 남쪽에 세울 남자 장승(남방축귀천하대장군)과 여자 장승(남방축귀지하여장군)을 메고 마을 남쪽 입구로 간다. 장승은 한 사람이 충분히 들어 뭉 수 있는 무게이기 때문에 한 두 사람이 메고 간다. 이동을 할 때 풍물을 치거나 노래를 부르는 일은 없고 조용히 움직인다. 마을 남쪽 입구(현 삼풍 가든 주변)에 이르면 남자 장승(남방축귀천하대장군)은 길 오른쪽에 여자 장승(남방축귀지하여장군)은 왼쪽에 세운다.

염성민 : 그렇게 맨들구 나서는, 그날 책 봐가지구, 부정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네 집이 당주 예요. 그 집에서 떡두 하고 다하는 거예요. 몇 시 한 네 시나 다섯시 되면 양쪽에 장승이, 저 위에 있고, 이 아래 있고, 그렇거든. 그래 이 아래와서 장승 지내고 또 저 위에 가서 또 장승 지내구 그래요.

조사자 : 남쪽에서 먼저 장승제를 지내요?

염성민 : 이 아래 먼저 지내요.

조사자 : 아 저 아래 노송지대 있는 데, 삼풍 농원 있고...

조사자 : 마을 사람들은 구경하고. 다 만들고 그걸 짚어져서,

염성민 : 그래 인저 그걸 다 맨들어 가지고, 인저 제사 지내러 갈 때는 이 위에 꺼는 놔두고, 아래 것만 두 개 메구선, 그러니까 네 개 아니야? 두 개만 메구 이 아래로 내려와서 지내구

조사자 : 아래로 내려 갈 때요. 거 장승 무거워요? 한 사람이 들 수 있어요?

염성민 : 무겁지 않지. 그 한사람이, 우리 발로 한 발 쪼금.

조사자 : 한 2미터? 한 2~3미터?

염성민 : 음. 한발 반. 그 정도로 높이가 되구, 뭐 요 정도니까 혼자서두 간단하죠 뭐.

조사자 : 그렇게 해서 하면서 밑에서 먼저, 뭐 움직일 때, 노래 부르고 뭐 그런거...?

염성민 :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냥 메구 가지구, 한 사람이 박는 거지. 남자가 이쪽(오른쪽)이니 까 이쪽 먼저 박구, 그 답에 여자는 이쪽(왼쪽)에다 박구. 근게 인제 지내는 것도, 남자 먼저 지내구, 그 답에 여자 있는 데 지내구.

이렇게 장승은 같은 장소에 매년 새롭게 세우기 때문에 그 동안 세워졌던 장승들이 함께 자리하게 되어 일종의 장승군이 형성되기도 한다.

조사자 : 이걸 해마다 만들어서...

염성민 : 그전에는 일년에 한번씩, 시월 초하루날 일년에 한번씩 만들어서, 꼭 지내요.

조사자 : 그러면 옛날 것들은요?

염성민 : 응?

조사자 : 여기 작년에 만들어 놓은 장승들이 또 있잖아요.

염성민 : 응. 거기에 또 있고, 또 백히구 그렇게. 그런데 해마다 거기 갖다가 꽃으니까. 올 꺼 있구, 작년 꺼 또 있구. 그럴꺼야. 그전엔 또 그게 없었어. 미군들이 전부 뽑아 가지구, 차에다 꽃고 다녔어.

조사자 : 장승들은 저절로 썩어 없어질 때까지 그대로 두고...

염성민 : 그렇죠.

장승 세우기가 끝나면 장승 제사가 시작된다. 장승 제사는 길 오른쪽에 세워진 남자 장승(남방축귀천하대장군)부터 지내고, 그 다음에 여자 장승(남방축귀지하여장군)에게 지낸다.

제사 방법은 우선 장승 앞에 제물을 차려 놓는데, 이때 쓰이는 제물로는 시루에 담긴 떡, 북어, 돼지 내장, 술, 밤, 대추 등이 쓰인다. 제사는 별다른 절차 없이 장승 앞에 제물을 차려놓고 당주가 절을 하는 형식을 취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당주가 장승 앞에서 절을 하고 나서 차려진 제물들을 약간씩 뜯어 창호지로 싼 후 장승 머리예다가 동여 멘다는 점이다. 장승이 그 제물들을 받아먹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조사자 : 그 지내는 방법은... 어떻게 절만 해요?

염성민 : 절만 하지.

조사자 : 축도 읽고 그러나요?

염성민 : 아니 절만 하고, 거기 인제 북어,

조사자 : 북어?

염성민 : 응. 시루에다 북어 꽃은 거, 북어 대가리 잘라 가지구, 떡, 떡 쪼끔 뜯구, 뜯어 가지구, 밤, 대추 이렇게 해 가지구, 한테 싸서 머리예다 동여 매주는 거지.

조사자 : 아 장승 머리예다가요?

염성민 : 응응.

수원시 미륵당 마을 장승제

조사자 : 뭘로 매나요? 매는 건?

염성민 : 저기 저거 아니여. 창호지. 거다 싸서 이렇게

조사자 : 왜 그렇게 매는 거죠?

염성민 : 모르지.

조사자 : 옛날부터...

이렇게 남쪽 장승들에 대한 제사가 끝나면 이어서 북쪽 장승들에 대한 제사가 이어진다. 북쪽 장승들에 대한 제사는 한 두 사람이 다시 당주집으로 가서 떡시루와 북쪽 장승들(북방축귀천하대장군, 북방축귀지하여장군)을 메고 오는 것으로 시작된다.

염성민 : 그 다음에 일루 올라가는 거지.

조사자 : 다시 당주집으로 가서

염성민 : 지냈으며는, 당주집으로는 누가 가느냐 하며는 떡시루 가질러 가는 사람.

조사자 : 허구, 또 위엿 것, 위의 장승을 가질러 가야 되잖아요.

염성민 : 에 글썸, 그 인저 다 안 가구, 한 사람만 누가 가서 가지구 온다구.

북쪽 장승들에 대한 제사 절차는 앞서 살펴본 남쪽 장승들에 대한 절차와 동일하다. 다만 북쪽 장승들에 대한 제사가 끝나면 장승 제사 전체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차려 놓았던 제물들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조사자 : 그래서 다시 위로 가서. 똑같이...

염성민 : 응. 똑같이, 똑같이 지내는 거지. 이 아래 지낸 거와 똑같애.

조사자 : 차려놓은 음식이나 그런건, 떡시루하고, 그런 건 여기서 쓴걸 똑같이 쓰죠?

염성민 : 거기 가서는, 위에 가서는 애덜, 애들 다 노봐 줘요. 다 나눠줘. 애들이 거 장승 제사 지내러 가면 애들이 전부 따라덜 와요. 주욱. 거 뭐 떡을 먹으면 좋다구, 다 온다구.

조사자 : 떡 먹으면 병 안걸리구. 뭐...

염성민 : 모르지. 알구 그러는지 뭐 모르지

이렇게 진행되는 장승 제사는 보통 한시간 반 정도가 소요된다.

### 3) 산신제

장승제가 끝나고 저녁 6시 전후가 되면 마을 사람들은 산신제를 올리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간다.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제관들과 마을 남자들이 주축이 되며, 여자로는 노그메를 짓는 당주 부인이 유일하게 올라간다.

조사자 : 당주는 그렇게 준비하고, 당주는 목욕 재계하고?

염성민 : 그렇지, 내일 지낼 것 같으면 전날, 목욕 재계하고.

조사자 : 부부가 다?

염성민 : 그렇지, 부부만 다 올라가니까.

조사자 : 그러니까, 유일하게 여자는 당주 부인만 (올라가는 거죠)?

염성민 : 응. 산에 올라가서 녹음 지어주구, 그러는거야.

염성민 : 산에 올라갈 때는, 그 땐 인저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요. 남자들이. 장승 지낼때는 애덜이 많이 따라 땡기구, 떡 먹으러. 산에는 소지 올리는 거 이런 거 불려구, 남자들이 다 올라가지.

산신제를 지내는 곳은 마을 앞에 있는 산인데, 특별한 이름은 없고 장성이 소유한 산이라고 해서 '별네개네 산' 이라고 부른다.

조사자 : 그 산신제 지내는 산 이름이 뭐예요?

염성민 : 산 이름도 없지 거기야. 요기 저 시방 거기가 별 네 개. 이 건너 별 네 개 살아요. 군인...

조사자 : 아 장군.

염성민 : 군인이 살아요. 시방. 그 사람 산에 산에다가 지었다구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몰래 썼잖아.

조사자 : 개인 땅이구나.

염성민 : 개인 땅이니까. 그러니까 별 네 개네 산이라구.

이렇게 '별네개네 산' 이라 불리는 마을 앞산에 산신을 모시는 당집이 있었다. 이 당집의 변천에 대해서 제보자 이봉희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봉희 : 매년 음력 시월 초하룻날, 직접 내가 그 돼지를 잡고 일부 집에서는 짚을 헐어 가지고 수를 엮어서 당집을 개조했어요. 매년 당제 때, 그랬었는데 이 부로꾸가 나오고 슬레이트가 나온 이후로 우리가 동네 사람들이 합동으로 부로꾸를 사다가 지었어요. 지었는데, 그 뭐 저 지방에서 이 그런 거 산 속에서 그런 거 지어 놓는 거 불법이라 그래가지구, 파장동 직

원들이 와 가지구 때려 부숴어요. 부시고 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도 교회가 생기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단합이 안 되더라구. 그래서 그럼 뜻맞는 사람들끼리 하자 그래가지구 한 이년 더했지.

### (가) 서낭나무 제사

마을 사람들이 산신께 올릴 제물을 짚어지고 저녁 6시쯤 산에 올라가면, 우선 당집 옆에 있는 서낭나무에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본격적인 산신제가 시작된다.

염성민 : ... 바깥에 또 거기에 장승 그게 있어요. 거기 먼저 지내구 그 인저 당집을 지키는 거지 거기서.

조사자 : 거기도 장승이 있었어요?

염성민 : 응응, 나무. 나무에다가...

조사자 : 아 서낭나무 같이...

염성민 : 나무에다가 정성을 드리는거야. ...

조사자 : 산신제 지내는 절차는 어때요? 처음에 딱 올라가면은...

이봉희 : 올라가면은, 올라가기 전에 그 서낭이 있어요, 서낭에다 잔을 한잔 올리고, 올리는 동킨 뉘냐, 토지지신이니까, 우선 땅을 보호하고 있는 건 서낭이니까, 우선 토지에다 먼저 잔을 한 잔 올려야지요.

서낭나무 제사 때에 올려지는 술은 막걸리가 쓰이며, 제물로는 떡시루, 돼지머리, 목살, 과일(사과, 감, 밤, 대추) 등이 사용된다.

### (나) 산신 제사

서낭나무에 제사를 지내고 난 후, 당집에서 산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제보자들의 제보를 종합해 보면 이 마을에서 모셔지는 산신은 호랑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송명옥 : 그렇게 정갈해요, 산제사래는게, 그렇게 정갈하고. 그 저 옛날 노인네들 애길 들으면은 그 전에 산제살 지내다가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서 안 지내고 그랬대요. 안 지냈는데 동네가 우환이 자꾸 퍼지고 저녁이면 그냥 산신령님이 와서 동네 돌아 댕기구 그래서 다시 지내구 그러니까 그런 게 싹 없어졌다는 거여.

조사자 : 그 산신령님의, 산신에 얽힌 얘기들 전해 내려오는 건 없어요?

이봉희 : 축문에 저 이걸 해석해보면은 호랭이한테 올린거여, 호랭이한테, 호랭이를 위한 거여, 호랭이.

송명옥 : 안 지내든 동네에 와서 막 돌아 땡기구.

이봉희 : 그 축문을 지금 오래 되서 잊어 버리구 원본도 없어지구 그랬는데, 우리가 매년 때 되면 읽고 들어보면 호랭이를 위한거여.

산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제물은 앞서 장승 제사나 서낭나무 제사 때의 것과 는 또 다르다.

이봉희 : ... 그 시루가 두 시루가 올라가요. 서낭 시루가 따로 있고, 산신 시루가 따로 있고. 제물도 두 가지를 차리죠.

송명옥 : 제사지내는 데선 이런 술을 쓰질 않아요. 쌀루 누르고 가려서 내일 해든 새벽에 집에서 해서 갖다 새벽에 갖다 아침에 갖다 물어요. 안에다가 저녁에 채를 걸러서 예, 그렇게 지 내는 거지. 술을 사다 쓰고 그런 건 없어요. 서낭 이런데는 막걸리를 돌리지만 그 산신은 거 저...

조사자 : 올리는 제물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서낭 올리는 건...

이봉희 : 서낭 올리는 거는 주로 머리, 목살을 띠어서 쓸어서 대접에 놓고 또 이 저기에는 장승에 는 간을 씹니다. 밤 대추 과일은 다 쓰는데 떡두 놓구 그런데, 주로쓰는 것이 간, 목, 줄고 기 몇점, 서낭에는 저걸 쓰고, 산신에는 돼지 다리, 사각똥 거, 그대로 앞쪽 둘, 뼈도 안 바 른 거, 앞다리 둘, 뒷다리 하나, 그러니까 돼지 하나 잡아서 몽땅 다 가는 거요, 다. 뒷다리 하나만 안 올라가고 다 올라가요.

이렇게 떡시루, 과일(사과, 감, 밤, 대추), 돼지 다리 등이 산신 제사 때 올려지는 제물이 다. 그런데 산신 제사 때 올려지는 제물 중에서 조라술과 노그메 등은 장승 제사나 서낭 나무 제사 때에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이것들은 각별하게 정성을 쏟아서 준비가 된다.

염성민 : 아래먼저 지내고, 저 위에 불란서 탑 있는 데, 그 밑에가 장승제 지내던 데예요. 이제 거기 가서 마지막 지내고, 인제 과일, 감, 대추, 밤 이거 가지구, 애들떡허구 애들 다 먹는 거예요. 거기에다 뭐를 가져 오냐면, 목살, 돼지 목살 고기 그걸 놓구 제사를 지내는 데, 이제 술은 술이 아니예요. 술이 아니구 감주거나 단술, 단지에다가 미리 부정 없는 사람들이 가서 오늘 해놓으면 그 이튿날 장승 지내는 날에 그걸 짜서 지낸다구요. 제사를 산에 올

수원시 미륵당 마을 장승제

라가서는 이제 장승 지낼 때는 술 갖구 지내구, 당집 있는 데 올라가서는 그 술 짜갖구 짓구, 녹음, 두 냄비 녹음 짓구...

조사자 : 노구메 쌀?

염성민 : 응, 쌀 냄비가 요만한 게 있어, 그걸루 두 냄비 짓구, 그걸 갖구, 바깥에 먼저지내구, 다음에 안에 들어와서 지내구. 떡이 장승 떡꺼정 세시루 허는거야. 많이는 안 해는거지. 한말가지구 세 시루를 노나서 하는 거야.

조사자 : 술 만드는 거요. 산신제 할 때, 그 술은 어떻게 만들어요? 조라술 이라고.

염성민 : 조라술. 응 그러니까, 옛기를

조사자 : 아. 옛기를.

염성민 : 옛기를 허구 버무려서 해는 거지.

조사자 : 옛기를 허구, 물허구 해서.

염성민 : 응.

이렇게 제물들을 준비하고 차려 놓은 다음에 제관들이 절을 하고 축문을 읽고 소지를 하는 산신 제사가 진행된다. 축문을 읽는 사람은 대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조사자 : 축은 어떤 거였어요?

염성민 : 축도 배운 사람이 읽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언저든지 축을 읽었다구.

그런데 현재 축문은 전해 내려오지 않는다.

조사자 : 축, 전해 내려오는 거는 없어요?

염성민 : 전해 내려오는 거 있었는데, 산신제 안 지내면서 다 없어졌어요.

조사자 : 아직 보관하고 계신 분은 없어요?

염성민 : 보관한 거는 없어요. 보관도 안허구, 싹 없어졌어. 누구네 집이 보관했는데, 여적 보관했었어요?

조사자 : 유세차 그러면서...

염성민 : 그렇죠.

그러나 제보자들이 기억하는 바에 따르면 호랑이를 산신으로 모시고 기원하는 내용이

었다고 한다.

이봉회 : 축문에 저 이걸 해석해보면은 호랭이한테 올린거여, 호랭이한테, 호랭이를 위한 거여, 호랭이.

송명옥 : 안 지내든 동네에 와서 막 돌아 댕기구.

이봉회 : 그 축문을 지금 오래 되서 잊어 버리구 원본도 없어지구 그랬는데, 우리가 매년 때 되면 읽고 들어보면 호랭이를 위한거여.

조사자 : 그 한번 희미하게나마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면?

이봉회 : 기억이 잘 안나요.

조사자 : 어떤 내용이 있었나. 그 축, 그러면 처음에는 그러잖아요. 유세차 뭐...

이봉회 : 물론 시초야 이 가정지 시제 모시는 축이나 똑같은 걸로 날짜 그거야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 거 호랭이한테 올리는 글이라는 것만 기억이 나지, 그 어떻게 그건 기억이 안나요.

축문 읽기가 마을 공동체 전체의 바램을 산신에게 기원하는 것이라면, 이어지는 소지는 마을 공동체를 이루는 각 가정의 바램을 산신에게 기원하는 것이다. 소지는 축관이 마을 사람 이름을 호명하면, 제관이 일년 열두 달 사고 없이 지내게 해달라고 빌면서 한지를 촛불에 태우는 의식이다.

염성민 : ... 그래 인저 이 안에 와서 쭈욱 앉아서 구경들허구, 그리구 인저 절하구, 소지 올리는 거여. 이 동네 사람 다. 누구 누구 이름 부르면서 소지 올리는 거 그거. 소지 올리구, 소지 올리구 끝이여.

송명옥 : 소지를 올리는데, 집집마다 하루씩 지관인가 그래 갖고서 맨들었는데, 아무개면 아무개 일년 열두 달 잘 사고 없이 그게 인저 찍어 볼래면 아우 참...

이봉회 : 다 지내고 마을 호호마다 다 명단이 있으니까. 명단을 옆에서 인제 축관이 읽으면 제관이 소지를 올리죠. 축원을 하지.

대개 호명되는 이름은 각 가정의 세대주인데, 이는 마을 사람들 모두를 일일이 호명하기에는 마을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 한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이 이름이 적힌 한지가 잘 타오르면 소원이 성취된다고 믿어 기뻐하고, 잘 타오르지 않으면 아쉬워한다고 한다.

소지 절차가 끝나면 끝으로 당주가 ‘마을 사람에게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 동네 평화롭게 해달라’고 기원을 하며 절을 하는 것으로 산신 제사는 마무리 된다.

#### 4) 음복

음복이란 신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을 말한다. 신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제관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절차가 음복인 것이다. 차려졌던 제물은 신이 드셨던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제물이 아니라 성화(聖化)된 제물이다.

미륵당 마을의 경우 저녁 8시 전후에 산신께 올리는 제사가 끝나면, 제사에 올린 음식을 당주 집에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다.

염성민: 산에서 두 다 지내구 끝나면, 저녁 한 여덟 시 그렇게 돼요. 여덟 시 이쯤 되면 이제 당주 집에 내려덜 와서, 국, 그 국을 돼지 잡았으니까, 국 끓인 거 그거해서 먹구. 그러구 돼지 갖다 돼지를 전부 잘라서 노놔요, 찢아서 저 한 집에 맏 근 싹 돌아가나 달아가지구, 한 집에서 근 돌아갈 때도 있구, 많으면, 돼지 큰 거 잡을 땐 닷 근 돌아갈 때도 있고

조사자: 똑같이 나누나요?

염성민: 똑같이 노나야죠.

조사자: 허구, 뭐 그렇게 끝나며는, 마을 잔치 비슷하게 하나요?

염성민: 잔치 비슷한 것두 없구, 또 끝나면 사람들 모두 고기 가질러 전부 여자나 남자나 인저 그땐 다 와요. 와서 국두 먹구, 또 술 있으면, 술 갖다가 술하구, 국하구 먹구 그래요. 그러다 구.

이봉희: 응 조금 못 올라가서. 거길 작은 고개라 그러거던. 고개 이름이 작은 고개. 그 작은 고개 밑에 가서 거 역시 동, 서쪽으로다 끊고 절을 올리고 내려와요. 내려와서 다시 인저 제물을 차려 가지고 오후 여섯 시 경 쯤 되면은 들고 올라가죠. 다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모시고 내려와서 돼지 머리는 사각형을 잘라서 동네 제일 연세 많이 잡순 분, 남자 두 분, 여자 두 분 요렇게 한 쪽씩 드리고, 고기는 마을 동네 사람들 돈 내는 데로 한몫 내는 사람은 한 몫, 반 몫 내는 사람은 반 몫 해 가지구 몫을 똑같이 가립니다. 갈라 가지구 그 날밤으로 산에서 내려 와 가지구 분배해서 나눠먹었죠. ...

송명옥: 저녁에 제사 지내고 와서 그 국물에 입가심들 하지.

이봉희: 돼지를 생걸로 쓰질 않고 삶어요. 약간 삶어서 하니까 통돼지를 삶으래 큰 술이래도 몇

번 삶어야 되거든, 그니까 진국이 나오지. 순대를 만들어서 삶고 그러니까 국물은 아주 좋죠. 그거 내서 주고 어떤 날은 눈이 썰 때도 있고 내려와서 따뜻한 국물 주면 막걸리 한 잔씩들 잡숫고...

송명옥 : 제사 지낸 음식이 기막히게 맛있어요.

이렇게 미륵당 마을에서는 산신에게 올렸던 제물들을 공평하게 나누고, 다함께 마련한 음식을 함께 먹는다. 이러한 행위는 신이 즐겼던 음식을 마을 사람들이 함께 먹는 것이기 때문에, 신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 보다 깊은 친밀감과 유대감이 생겨나게 한다. 아울러 성화된 음식을 함께 나누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도 한결 두터운 정이 움튼다. 음복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마을 공동 제의에 참여하는 것이며,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된다. 결국 음복은 친밀과 유대의 상징적 행위이며, 공동체적 동질감을 재확인하는 자리인 것이다.

## V. 미륵당 마을 장승제의 계승을 위한 제언

### 1) 미륵당 마을 공동 제의의 현재 상황

현재 미륵당 마을의 공동 제의는 중단이 되어 있다. 해마다 장승을 세우고 장승 제사를 벌이는 행사는 물론 산신 제사 역시 중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중단이 된 것은 산신 제사를 드리던 당집이 사라지면서부터 라고 한다.

염성민 : 그런 건 모르겠어. 그런 건 몰르구, 하여간 옛날부터 옛날서부터 지냈으니까 이저 우리가 쭈욱 지내는 거야. 그 뭐 인저 당집 다 헐어버리구, 그러니 그때부터 안 지내는거지.

조사자 : 산신제, 산신당 다 없어진 거지요?

염성민 : 예. 다 헐었잖아. 다 시에서 나와서 헐구, 그래 가지구...

조사자 : 아 그랬어요?

염성민 : 응. 그래 가지구 안 지내구...

그런데 당집이 사라지고 몇 년간은 장승 제사는 물론이고 산마루 당집이 있었던 자리에서 산신 제사를 지냈었다고 한다.

수원시 미륵당 마을 장승제

이봉희 : 그기 없어진 지가 한 칠년

송명옥 : 한 십년 되지, 십년 돼.

이봉희 : 매년 음력 시월 초하룻날, 직접 내가 그 돼지를 잡고 일부 집에서는 짚을 헐어 가지고 수를 엮어서 당집을 개조했어요. 매년 당제 때, 그랬었는데 이 부로꾸가 나오고 슬레이트가 나온 이후로 우리가 동네 사람들이 합동으로 부로꾸를 사다가 지었어요. 지었는데, 그 뭐 저 지방에서 이 그런 거 산 속에서 그런 거 지어 놓는 거 불법이라 그래가지구, 파장동 직원들이 와 가지구 때려 부셨어요. 부시고 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도 교회가 생기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단합이 안 되더라구. 그래서 그럼 뜻맞는 사람들끼리 하자 그래가지구 한 이년 더했지.

송명옥 : 한 이년 했지, 기냥.

이봉희 : 그 자리에다 그냥, 지붕도 없구 그냥, 위치는 있구 이래니까 지냈었다구.

하지만 마을 주변에 길이 들어서고 사회 문화적 상황이 변하게 되면서 더 이상 마을 공동 제의는 지속되지 못했다.

조사자 : 언제부터 안 지낸 거예요?

염성민 : 그거 혈구부터...

조사자 : 장승같은 건 안 만들었나요?

염성민 : 안 만들었어. 왜냐 그전에는 산신제, 차도 차도 없잖아요. 많지 않아서 장승 갖다 제사 지내기가 좋았다구. 시방은 어따 갖다 놓구 제사 지낼 수가 없어. 응. 차가 맨이 땡겨서. 그래 가지구 하여튼, 당집 혈구 나서 안 지내는 거야. 그르구 차가 많아서 행길에서 지내지 두 못하구.

이렇게 마을 공동 제의가 중단되게 되면서 제의에 사용되던 제사 도구, 축문 등도 없어져 버리게 된다.

이봉희 : ... 그런데 약 한 십년 전부터 없어졌어요.

조사자 : 80년대 말에 없어졌어요?

이봉희 : 그렇죠. 80년대 말에 없어졌죠? 아마 올림픽 전제가 없어졌을 거예요.

송명옥 : 그렇지.

이봉희 : 87년도부터 안 지낸 걸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제사 도구가 그릇이구 축문이구 이 형씨가 관리를 했었어요. 했는데, 인저 한참을 안 지내기 시작하니까 그걸 갖다 보관하기두 어렵

고 시나브로 다 없어지구.

조사자: 지금 남아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송명옥: 없어요.

이봉희: 없어요.

조사자: 축문도 없어요?

이봉희: 죄다 없어졌어요.

이렇게 미륵당 마을의 공동 제의는 현재 중단되어 완전 소멸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 왔던 마을 공동 제의가 이제 완전히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미륵당 마을 공동 제의의 복원을 절망적으로 보게끔 만들고 있다. 하지만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만은 아니다. 이는 마을 공동 제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마을 어른들이 남아 있고, 그들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이다. 불행중 다행으로 마을 공동 제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남아 있어 그 복원의 가능성은 높은 것이다.

## 2) 미륵당 마을 공동 제의의 계승 방향

미륵당 마을 공동 제의의 계승은 여러 방법이 제안될 수 있다. 조사자는 미륵당 마을 공동 제의의 계승에 대하여 장승제를 중심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안해 본다.

### (가) 시연(試演)을 통한 원형 그대로의 복원

이는 미륵당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 공동 제의의 원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복원하는 방향이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마을 공동 제의의 준비 과정에서 시작하여 장승제, 산신제, 음복에 이르는 전과정을 복원해 내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의 복원은 마을 공동 제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기억해 내는 마을 어른들이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을 공동 제의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 문화적 환경이 변한 현재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복원이 얼마나 자생적 지속력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회의적이다. 일회적인 행사에 그치고 말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형 그대로의 복원을 추진하게 된다면, 자생적 지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다. 수원 시청이나 수원 문화원 또는 기타 문화 예술 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시급한 것은 미륵당 마을 공동 제의의 시연(試演)이다. 현재 공동 제의 절차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륵당 마을에서 원형 그대로 시연해 보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미륵당 마을 공동 제의에서 마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또는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며, 주변에서 도움을 줄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제보에만 의존해서는 놓쳤을 수도 있었던 여러 문제들도 시연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구체적인 확인 작업을 통해 미륵당 마을 공동 제의 지속적인 전승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올 시월 초에 미륵당 마을 공동 제의의 원형 복원을 위해서 마을 사람들과 수원 시청 담당자, 수원 문화원, 기타 문화 예술 단체 등이 함께 제의의 전 과정을 준비하여 시연 행사를 가질 것을 제안한다. 물론 이 시연 행사는 일회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되고, 미륵당 마을 공동 제의의 지속적인 전승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전망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 (나) 정조 대왕 능행차 연시와 연결짓는 창조적인 계승

미륵당 마을의 공동 제의를 화성 문화제 행사와 연결시켜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앞서 살폈듯이 수원에는 비단 미륵당 마을뿐만 아니라 정조 대왕의 능행차 길 곳곳에 장승이 서 있었다. 이 모든 것을 복원하여 정조의 능행차 길을 안내하고, 능행차가 무사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하는 행사를 기획할 수 있는 것이다.

화성 문화제가 열리는 시기에 맞추어 정조 대왕의 능행차 길 곳곳에 정조 대왕의 능행차 길 안내 역할을 담당하는 장승을 세우면서 장승 축제를 벌인다. 이 장승 축제는 정조 대왕의 능행차 연시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장승이 세워 지는 각 지역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승 축제 때 미륵당 마을의 장승 및 관련 제의는 특히 중요시되어야 한다. 미륵당 마을이 갖는 지리적 위치가 정조 대왕이 수원으로 들어서는 첫 길목이라는 특징을 살려서, 수원 혹은 화성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길목 안내의 역할과 여기서 정조 대왕 능행차의 무사 안녕을 비는 상징적인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부록: 미륵동 마을 장승 관련 현지 조사 자료

1. 장금수 씨의 제보

장금수 씨(남, 1938년 생)는 현재 수원시 미륵당 마을에 살고 있다. 그는 예전에 미륵당 마을 공동 제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다. 직접 장승이 있었던 곳까지 직접 안내를 해주시며, 장승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장승 관련 제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여러 제보자들도 소개해 주셨다. 여기 채록된 장금수 씨의 제보는 원래 그 내용이 훨씬 더 많았으나, 녹음기 조작 실수로 인하여 상당부분이 녹음이 안되어, 일부분만을 채록한 것이다.



제보자 장금수 씨

조사자 : 저쪽 북쪽에서 장승제 지내고, 여기서도 똑같이 지내는 거죠.

장금수 : 똑같이 지내는 거죠.

조사자 : 똑같이 해서 절하고, 그러니까 제물은 어떤 거 올리는 거죠?

장금수 : 여기서 제물 없어요, 떡하구 안주, 안주 저기 내장이래든가 썰어 가지구, 고거 한접시 놓구, 술 갖다 놓구,

조사자 : 소지 같은 건 안 올리구요?

장금수 : 소지는 안 올리구, 축문은 해야죠. 술은 사오는게 아니구, 당주가 하는, 술을 갖다 하는거죠. 먹어야 밍밍해지죠. 뭐, 술이 아니지요.

조사자 : 그렇게 해서 절하고, 올리고, 같이 오는 마을 사람들도 절하고, 그랬어요?

장금수 : 아니요. 당주하고 저기 그 축문하고, 당주만 와서 절하는 거죠.

조사자 :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이렇게...

장금수 : 마을 사람들은 안오죠.

조사자 : 오지 않고 그냥 장승만 세워놓고, 세워 놓기만 하고...

장금수 : 절하는 것도, 그냥 저기 산에 올라가면 거기서도 마을 사람들이 다 절하는 게 아니에요. 당주하고, 저기 축문 올리는 사람이 소지올리면서 저기하고 그러는 거지,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절하는게 아니에요.

조사자 : 마을 사람들은 그냥 보기만하고 ...?

장금수 : 그렇지요, 그냥 보기만 하고

조사자 : 그렇게 해서 여기도 다 끝나면 이제

수원시 미륵당 마을 장승제

장금수 : 끝나면 낮에 하는거그던, 낮에 하걸랑요. 낮에 하면 끝나면 이제 서낭당 올라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밤에 올라가는 거죠.

## 2. 염성민 씨의 제보

염성민 씨(1928년 생, 남)는 현재 미륵당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장금수 씨의 소개를 통해 만나게 되어, 미륵당 마을의 장승 관련 제의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미륵당 마을 공동 제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어서 장승의 형태, 장승 제작 방법, 장승제 절차, 산신제 절차 등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조사자 : 미륵동 마을에, 산신제도 있었구, 장승도 있었다구 그러더라구요.

염성민 : 장승, 장승 있었죠.

조사자 :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구요, 그래서 다시 장승들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그러려구요. 예전에 장승도 만들구 그러셨다고, 그 얘기 좀 해 주세요. 장승 어떻게 만드는지.

염성민 : 장승을 갖다가, 산에서 나무를 베가지구, 두 개 베어다가, 딱 깎아서, 깎아가지구 인저 맨 드는거죠.

조사자 : 그 나무는 어떤 나무를...?

염성민 : 소나무, 저 오리나무, 닥치는 대로 봐서 좋은 걸로,

조사자 : 몇 년 이상 된 나무 뭐 그런건...?

염성민 : 하여튼 굵어야죠.

조사자 : 며칠 날 산에 올라가서 장승...

염성민 : 장승은, 시월 초하루 날이 산신제 지내는 날이예요. 그날 아침에 올라가서 베어다가 그 날 깎아서 그날 지내요.

조사자 : 아 그날, 보통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염성민 : 이 정도(양 팔을 펼쳐 보인다),

조사자 : 만드는 과정은?, 자세하게

염성민 : 깎아서, 글쓰기 좋게 반듯하게 깎고, 그 다음에 인저 얼굴, 여기 다가 귀 갖다가 꽃고

조사자 : 남자 여자 따루?

염성민 : 예, 여자 다르구, 남자, 다르구, 여자는 뽕달구,

조사자 : 아 사모 관대 쓴 것 같이.

염성민 : 예, 그렇지, 여자는 그냥.

조사자 : 거기에 뭐라고 써요?

염성민 : 천하대장군.

조사자 : 여자는 지하 여장군.

염성민 : 그렇지.

조사자 : 그렇게 만들구 나서는요?

염성민 : 그렇게 맨들구 나서는, 그날 책 보가지구, 부정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네 집이 당주  
예요. 그 집에서 떡두 하고 다하는 거예요. 몇 시 한 네 시나 다섯 시 되면 양쪽에 장승이,  
저 위에 있고, 이 아래 있고, 그렇거든. 그래 이 아래 와서 장승 지내고 또 저 위에 가서 또  
장승 지내구 그래요.

조사자 : 남쪽에서 먼저 장승제를 지내요?

염성민 : 이 아래 먼저 지내요.

조사자 : 아 저 아래 노송지대 있는 데, 삼풍 농원 있고...

염성민 : 아래먼저 지내고, 저 위에 불란서 탑 있는 데, 그 밑에가 장승제 지내던 데예요. 이제 거기  
가서 마지막 지내고, 인제 과일, 감, 대추, 밤 이거 가지구, 애들 떡허구 애들 다 먹는 거예  
요. 거기에다 뭐를 가져 오냐면, 목살, 돼지 목살 고기 그걸 놓구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  
술은 술이 아니예요. 술이 아니구 감주거나 단술, 단지에다가 미리 부정 없는 사람들이  
가서 오늘 해놓으면 그 이튿날 장승 지내는 날에 그걸 짜서 지낸다구요. 제사를 산에 올  
라가서는 이제 장승 지낼 때는 술갓구 지내구, 당집 있는 데 올라가서는 그 술 짜갓구 짓  
구, 녹음, 두 냄비 녹음 짓구...

조사자 : 노구메 쌀?

염성민 : 응, 쌀 냄비가 요만한 게 있어, 그걸루 두 냄비 짓구, 그걸 갓구, 바깥에 먼저 지내구, 다음  
에 안에 들어와서 지내구. 떡이 장승 떡꺼정 세시루 허는거야. 많이는 안 해는거지. 한말  
가지구 세 시루를 노나서 하는 거야.

조사자 : 그래서 이쪽 장승에 한시루, 저쪽 장승에...

염성민 : 아니야. 장승 지낼 땐 하나 가지구 다 지내구. 인제 산에 올라가서. 거기 올라가서는 이제  
떡이 두 시루야. 바깥에 또 거기에 장승 그계 있어요. 거기 먼저 지내구 그 인제 당집을  
지키는 거지 거기서.

조사자 : 거기도 장승이 있었어요?

염성민 : 응응, 나무. 나무에다가...

조사자 : 아 서낭나무 같이...

염성민 : 나무에다가 정성을 드리는거야. 그래 인제 이 안에 와서 쭈욱 앉아서 구경들 허구, 그리  
구 인제 절허구, 소지 올리는 거야. 이 동네 사람 다. 누구 누구 이름 불르면서 소지 올리

는 거 그거. 소지 올리구, 소지 올리구 끝이여.

조사자: 장승제 지내는 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염성민: 장승제 지내는 게 그렇대니까.

조사자: 이쪽 남쪽에다가 장승을, 그러니까 당주 집에서 장승을 다 만드는 거죠?

염성민: 그렇게, 그 집에서 다. 부정이 없으니까 그 집에서 다 하는 거지.

조사자: 마을 사람들은 구경하고, 다 만들고 그걸 짚어져서,

염성민: 그래 인저 그걸 다 맨들어 가지고, 인저 제사 지내러 갈 때는 이 위에 꺼는 놔두고, 아래  
것만 두 개 메구선, 그러니까 네 개 아니야, 두 개만 메구 이 아래로 내려와서 지내구

조사자: 아래로 내려 갈 때요. 거 장승 무거워요? 한 사람이 들 수 있어요?

염성민: 무겁지 않지. 그 한사람이... 우리 발로 한 발 쪼금.

조사자: 한 2미터? 한 2-3미터?

염성민: 음. 한발 반. 그 정도로 높이가 되구, 뭐 요 정도니까 혼자서 두 간단하죠 뭐.

조사자: 그렇게 해서 하면서 밑에서 먼저, 뭐 움직일 때, 노래 부르고 뭐 그런거...?

염성민: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냥 메구 가지구, 한 사람이 박는 거지. 남자가 이쪽(오른쪽)이니  
까 이쪽 먼저 박구, 그 답에 여자는 이쪽에다 박구. 근게 인제 지내는 것도, 남자 먼저 지  
내구, 그 답에 여자 있는 데 지내구.

조사자: 그 지내는 방법은... 어떻게 절만 해요?

염성민: 절만 하지.

조사자: 축도 읽고 그러나요?

염성민: 아니 절만 하고, 거기 인제 북에,

조사자: 북어?

염성민: 응. 시루에다 북어 꽃은 거, 북어 대가리 잘라 가지구, 떡, 떡 쪼끔 뜯구, 뜯어 가지구, 밤,  
대추 이렇게 해 가지구, 한데 싸서 머리에다 동여 매주는 거지.

조사자: 아 장승 머리에다가요?

염성민: 응.

조사자: 뭘로 매나요? 매는 건?

염성민: 저기 저거 아니여. 창호지. 거다 싸서 이렇게

조사자: 왜 그렇게 매는 거죠?

염성민: 모르지.

조사자: 옛날부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염성민: 그 다음에 일루 올라가는 거지.

조사자: 다시 당주집으로 가서

염성민 : 지냈으며는, 당주집으로는 누가 가느냐 하며는 떡시루 가질러 가는 사람.  
조사자 : 허구, 또 위엿 것, 위의 장승을 가질러 가야 되잖아요.  
염성민 : 에 글썸, 그 인저 다 안 가구, 한사람만 누가 가서 가지구 온다구.  
조사자 : 그래서 다시 위로 가서. 똑같이...  
염성민 : 응. 똑같이, 똑같이 지내는 거지. 이 아래 지낸 거와 똑같애.  
조사자 : 차려놓은 음식이나 그런건, 떡시루하고, 그런 건 여기서 쓴걸 똑같이 쓰죠?  
염성민 : 거기 가서는, 위에 가서는 애덜, 애들 다 노놉 줘요. 다 나눠줘. 애들이 거 장승 제사 지내러 가면 애들이 전부 따라덜 와요. 주욱. 거 뭐 떡을 먹으면 좋다구, 다 온다구.  
조사자 : 떡 먹으면 병 안걸리구. 뭐...  
염성민 : 모르지. 알구 그러는지 뭐 모르지  
조사자 : 그렇게 해서 장승제가 끝나면 저녁때...?  
염성민 : 산에서두 다 지내구 끝나면, 저녁 한 여덟 시 그렇게 돼요. 여덟시 이쯤 되면 이제 당주 집에 내려덜 와서. 국, 그 국을 돼지 잡았으니까, 국 끓인 거 그거 해서 먹구. 그러구 돼지 갖다 돼지를 전부 잘라서 노놉요. 잘라서 저 한 집에 멧 근 썩 돌아가나 달아가 지구, 한 집에서 근 돌아갈 때도 있고, 많으면, 돼지 큰 거 잡을땐 닷 근 돌아갈 때도 있고  
조사자 : 똑같이 나누나요?  
염성민 : 똑같이 노나야죠.  
조사자 : 허구, 뭐 그렇게 끝나며는, 마을 잔치 비슷하게 하나요?  
염성민 : 잔치 비슷한 것두 없구, 또 끝나면 사람들 모두 고기 가질러 전부 여자나 남자나 인저 그땐 다 와요. 와서 국두 먹구, 또 술 있으면, 술 갖다가 술하구, 국하구 먹구 그래요. 그런다구.  
조사자 : 전체 큰 산신제 속에, 산신제 지내는 속에 장승제가 있는 거네요.  
염성민 : 그렇죠.  
조사자 : 뭐 옛날에 장승에 얽힌 얘기 전해 내려오는 것 없어요?  
염성민 : 몰르지 인저.  
조사자 : 저 지시대 고개 근처에도 옛날엔 장승이 있었다고 그러던데.  
염성민 : 그래 글썸, 거기 우리가 거기서 지낸 거 아니야?  
조사자 : 거기가 정조 대왕 때, 정조 대왕이 장승 세우라고 그래서 장승이 있었다구...  
염성민 : 그런 건 모르겠어. 그런 건 몰르구, 하여간 옛날부터 옛날서부터 지냈으니까 이저 우리가 주욱 지내는 거야. 그 뭐 인저 당집 다 헐어버리구, 그러니 그때부터 안 지내는거지.  
조사자 : 산신제, 산신당 다 없어진 거지요?  
염성민 : 에. 다 헐었잖아. 다 시에서 나와서 헐구, 그래 가지구...

수원시 미륵당 마을 장승제

조사자: 아 그랬어요?

염성민: 응. 그래 가지구 안 지내구...

조사자: 그게 몇년도?

염성민: 그게. 상당히 오래 됐는데, 한 한 삼 십 년 됐을 걸요.

조사자: 언제부터 안 지낸 거예요?

염성민: 그거 혈구부터...

조사자: 장승같은 건 안 만들었나요?

염성민: 안 만들었어. 왜냐 그전에는 산신제, 차도 차도 없잖아요. 많지 않아서 장승 갖다 제사 지 내기가 좋았다구. 시방은 어따 갖다 놓구 제사 지낼 수가 없어. 응. 차가 맨이 땡겨서. 그 래 가지구 하여튼, 당집 혈구나서 안 지내는 거야. 그르구 차가 많아서 행길에서 지내지 두 못하구.

조사자가 사진 자료(80년대에 찍은 사진)를 보여주었다.

조사자: 이런 장승들을 뭐라고 불렀나요?

염성민: 장승이라고 부르지 뭐.

조사자: 이걸 해마다 만들어서...

염성민: 그전에는 일년에 한번씩. 시월 초하루날 일년에 한번씩 만들어서. 꼭 지내요.

조사자: 그러면 옛날 것들은요?

염성민: 응?

조사자: 여기 작년에 만들어 놓은 장승들이 또 있잖아요.

염성민: 응. 거기에 또 있고, 또 백히구 그렇게. 그런데 해마다 거기 갖다가 꽃으니까. 올 꺼 있구, 작년 꺼 또 있구. 그럴꺼야. 그전엔 또 그게 없었어. 미군들이 전부 뽑아 가지구, 차에다 꽃고 다녔어.

조사자: 장승들은 저절로 썩어 없어질 때까지 그대로 두고...

염성민: 그렇죠.

조사자: 저희들이 이렇게 조사를 다니는 것두요. 이게 80년대에 찍은 사진인데, 80년대에는 이렇 게 미륵당 마을에 있었다구...

염성민: 맞아요.

조사자: 그러면. 산신제 지내는 걸요. 처음부터요. 그러니까 언제 당주 정하고, 그런 것 좀...

염성민: 인저 당주 정할래면, 책을 그 한 닷새 앞두고, 당주를 정하는 데요. 책을 전부 책 봐요. 책 을 다 봐 가지고, 거기서 제일 좋은 사람을 뽑고, 거 부정 없는 집을 당주 집 정하구, 또 인

자 제일 좋은 사람이 소지 올리는 거여. 그런거지. 산에 올라가서.

조사자 : 그렇게 해서 당주가 정해지며는...?

염성민 : 인저, 당주가 정해지면, 누구네가 당주다 그러면, 내일 고사 지낼 것 같으면, 거기다가 황토흙, 흙갓다가 부정 있는 사람 못 들어오게, 들어오지 말라고, 황토흙 갓다가. 양쪽에 다 문에다 맨다구.

조사자 : 금줄도, 금줄은 안 치나요?

염성민 : 응, 금줄은 안하고, 그전에 이게 문이면, 여기다 이 양쪽에다 황토흙을 놓는다구. 그러면, 동네 사람은 다 알잖아요, 동네 사람은, 산신제 지내는거, 누구네 당주래는거. 그러기 땀에 부정한 사람은 가지도 않아요. 인제 또 떡두 남자들이 인제 다 허는거, 해요.

조사자 : 떡 만드는 것두요?

염성민 : 응. 떡방아두, 여기 와서, 기계로 안 뿡구, 절구로, 절구 뿡아가지구, 그래 가지구 쌀 한 말, 떡 해는 거니까 그 세 시루 찼 걸 딱 노나 하는 거야. 장승 지낼 건 두 뒷박, 산에 가는 건 많이, 많이가져가야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산에 건 많지. 그래요.

조사자 : 당주는 그렇게 준비하고, 당주는 목욕 재계하고?

염성민 : 그렇지, 내일 지낼 것 같으면 전날, 목욕 재계하고.

조사자 : 부부가 다?

염성민 : 그렇지, 부부만 다 올라가니까.

조사자 : 그러니까, 유일하게 여자는 당주 부인만 (올라가는 거죠)?

염성민 : 응. 산에 올라가서 녹음 지어주구, 그러는거야. 그러구 인저 여기 소지 올리는 사람이 저 거하고, 당주는 인저 관계가 없어요. 여긴.

조사자 : 소지 올리는 사람이 제관이죠?

염성민 : 응, 책 봐 가지구 제일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소지 올리구, 축...

조사자 : 축은 어떤 거였어요?

염성민 : 축도 배운 사람이 읽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언저든지 축을 읽었다구.

조사자 : 축, 전해 내려오는 거는 없어요?

염성민 : 전해 내려오는 거 있었는데, 산신제 안 지내면서 다 없어졌어요.

조사자 : 아직 보관하고 계신 분은 없어요?

염성민 : 보관한 거는 없어요. 보관도 안허구, 싹 없어졌어. 누구네 집이 보관했는데, 여적 보관 했었어요?

조사자 : 유세차 그러면서...

염성민 : 그렇죠.

조사자 : 산제사 전날 목욕재계를 다 하구, 산제사 날, 음력 10월 1일 딱 되면, 아침에 마을 사람들

이 산에 가서 장승 만들 것,

염성민 : 그렇죠.

조사자 : 재목을 구해가지고 와서, 당주 집에 쪽 모여서, 깎고,

염성민 : 깎아서

조사자 : 그건 아무나 좀 잘 만드는 사람들이 몇몇이 모여서...?

염성민 : 그렇지요. 그것도 그림 잘 그리고, 붓글씨 잘 쓰는 사람이 해야 이걸 다 쓰지.

조사자 : 직접 같이 만드시고 그러셨죠?

염성민 : 나는 거 안 만들구, 맨드는 건 판 사람들이, 목수, 기술 좀 있구, 그런 사람들이 다 만들구.

조사자 : 손재주 좋고 그러신 분들이... 그 만들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있고, 남자들...

염성민 : 남자들 모여서 그날 점심. 점심들 먹구 그러니까 다들 와서. 그날은 하루 노는 날이에요.  
하루 놀어요.

조사자 : 모여서 장승을 만들고,

염성민 : 만들구 점심덜 먹구.

조사자 : 오후 세 네 시 정도 되며는 장승 짊어지고 가서 남쪽에서 먼저 가서 지내구...

염성민 : 그렇죠.

조사자 : 그 다음에 다시 북쪽에서 지내구.

염성민 : 그렇죠.

조사자 : 좀 기다렸다가 산에 올라가서...

염성민 : 산에 올라갈 때는, 그 땀 인저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요. 남자들이. 장승 지낼 때는 애덜이 많이 따라 땡기구, 떡 먹으러. 산에는 소지 올리는 거 이런 거 볼려구, 남자들이 다 올라가지.

조사자 : 옛날에는 여기가 한 몇 호 정도 살았나요?

염성민 : 옛날에는 한 스물 예닐곱 집. 그것 밖에 안 살았어요.

조사자 : 그 사람들이 다 참여했겠네요?

염성민 : 예.

조사자 : 이 장승을 언제부터 만들었는지는...?

염성민 : 장승을 언제서부터 만들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허지.

조사자 : 어렸을 때부터.

염성민 : 그렇죠. 옛날부텀 내려온거지. 뭐 얘기 듣기는 말타구두, 못가구, 걸어서 가구 그랬대요.  
옛날에는 장승 양쪽에다 인줄을 쳐 가지구, 이 위에 이 아래 사람 못 들어오게. 줄치구 그랬대요.

조사자 : 아 산신제 지내고 그럴 때요?

염성민 : 응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러구 이 부락에 들어왔으면, 들어온 사람 내보내지 않구, 산제 지내고 끝난 담에 내 보내구, 옛날엔 그랬대.

조사자 : 굉장히 엄했군요.

염성민 : 예에. 옛날엔 그렇게 엄했대요.

조사자 : 산신제 지낼 때요. 미륵당 미륵불 거기에다가는 뭐 제 안 지냈어요?

염성민 : 미륵, 뭐 거기는 안 지내고.

조사자 : 그 산신제 지내는 산 이름이 뭐예요?

염성민 : 산 이름도 없지 거기야. 요기 저 시방 거기가 별 네 개. 이 건너 별 네 개 살아요. 군인

조사자 : 아 장군.

염성민 : 군인이 살아요. 시방. 그 사람 산에 산에다가 지었다구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몰래 썼잖아.

조사자 : 개인 땅이구나.

염성민 : 개인땅이니까. 그러니까 별 네 개네 산이라구.

조사자 : 술 만드는 거요. 산신제 할 때, 그 술은 어떻게 만들어요? 조라술 이라구.

염성민 : 조라술. 응 그러니까, 옛기름

조사자 : 아. 옛기름.

염성민 : 옛기름 허구 버무려서 하는 거지.

조사자 : 옛기름 하구, 물하구 해서.

염성민 : 응.

조사자 : 그 산신제 지낼 때요, 드는 비용은 어떻게 모았어요?

염성민 : 그 때는...

조사자 : 그 돈으로 내는 건지, 쌀로 내는 건지?

염성민 : 쌀 한 되씩 건구.

조사자 : 집집마다요?

염성민 : 이제 그날 돼지를 사오는 거니까, 돈을 걷어가지구 가서 사오구 그랬다구.

조사자 : 거의 똑같이 집집마다 돈을 내는 거죠?

염성민 : 그렇죠. 다 내요.

조사자 : 그때 뭐, 산신제 지내고 그럴 때 농약치고 그런 건 없었어요?

염성민 : 없어요.

조사자 : 일제시대 때 그런 거 못하게 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염성민 : 왜정 때? 왜정 때 못하게 해도 아마 지냈어요. 한 일년 간.

조사자 : 일본 놈들이 해꼬지하고 그러진 않았었어요? 장승에다가 뭐 그러 고.

염성민 : ...

조사자 : 이 법화당은 어떻게 생긴거죠, 이 미륵당? 미륵당요, 마을 한가운데 있는 거, 그건 어떻게 생긴거예요?

염성민 : 그건 뭐, 우리 생기기 전에 있는 거니까 몰르지, 뭐.

조사자 : 산신제 지낼 때는 거기서는 안하고...

염성민 : 예. 거기는 저 옛날에 손 못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울서 와가지구 정성지내구, 지금도 와서 지내구.

조사자 : 오늘도 거기 들렀다 오는데 지내더라구요.

염성민 : 지내요.

조사자 : 마을 어르신들 중에요, 장승 만들고 그러셨던 분 계세요?

염성민 : 없어요. 죽었어요, 다.

조사자 : 송명호 씨 하고 이봉희 씨 다 계세요?

염성민 : 여기있어요. 그 사람들 다 여기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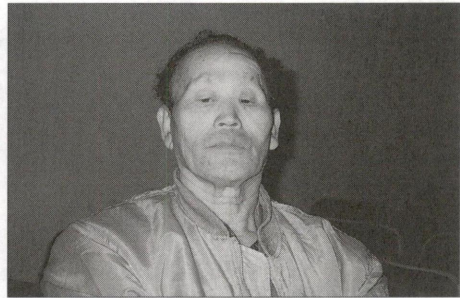
조사자 : 아. 다 여쭙보면 되겠구나. 지금 불러 다 얘기하면.

염성민 : 그러면 돼요.

### 3. 이봉희 · 송명옥 씨의 제보



제보자 이봉희 씨



제보자 송명옥 씨

이봉희(1933년 생, 남), 송명옥(1927년 생, 남) 씨는 모두 현재 미륵당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장금수, 염성민 씨의 소개로 만날 수 있었다. 이들은 미륵당 마을 공동 제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제의에 사용했던 제기와 축문 등을 보관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마을 공동 제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었기 때문에 제의 전반에 관하여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봉희 : 그기 없어진 지가 한 칠년

송명옥 : 한 십년 되지, 십년 돼.

이봉희 : 매년 음력 시월 초하룻날, 직접 내가 그 돼지를 잡고 일부 집에 서는 짚을 훔어 가지고 수를 엮어서 당집을 개조했어요. 매년 당제 때, 그랬었는데 이 부로꾸가 나오고 슬레이트가 나온 이후로 우리가 동네 사람들이 합동으로 부로꾸를 사다가 지었어요. 지었는데, 그 뒤 저 지방에서 이 그런 거 산 속에서 그런 거 지어놓는거 불법이라 그래가지구, 파장동 직원들이 와 가지구 때려 부숴어요. 부시고 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도 교회가 생기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단합이 안되더라구. 그래서 그럼 뜻맞는 사람들끼리 해자 그래가지구 한 이년더했지.

송명옥 : 한 이년 했지, 기냥.

이봉희 : 그 자리에다 그냥, 지붕도 없구 그냥, 위치는 있구 이래니까 지냈었다구. 그래 시월 초하룻날이면은 한 이일 전에 당주를 뽑고, 생기복덕을 가려 가지구 여자는, 당주뽑고 제관 뽑고 또 당주를 뽑아요, 음식 차리는 집이. 그렇게 뽑아 놓면은 음력으로 구월 보름날쯤 염씨(염성민)나 송씨(송명옥)나 나나 셋 중에 두어 사람이가지구 음식을 사요. 흥정을 딱 해놓고 시월 초하룻날 식전에 가서 실어 온다구, 리어카루. 실어다가 일부는 돼지 잡고 일부 사람들은 산에 가서 오리나무를 비어다가 장승을 깎아요.

조사자 : 그 산 어디 앞에 있는 산?

송명옥 : 예. 그 앞에 산.

이봉희 : 미륵 법화당에서 마주 건너다 보이는 산 마루. 신작로 건너서 산마루.

조사자 : 오리나무?

이봉희 : 응, 저 오리나무를 비어다가, 장승을 깎어요. 그 네 개를 깎아서 지금 두 길로 올라가다 보면은 노송길로 올라가다 보면은 산업도로하고 마주치는 데 있죠. 그 소나무 하나 멋있는 거 있는데.

조사자 : 예 그 삼풍 농원 가는 데...

송명옥 : 제일 큰 소나무 있는데.

이봉희 : 예, 제일 큰 소나무 있는데, 거기서 이저 양쪽에다가 장승을 세우고, 제사를 올리고.

조사자 : 어느 쪽, 양쪽이면은 남자는? 남자 여자 따로?

이봉희 : 남자가 소나무 쪽, 남자는 동쪽, 여자는 서쪽. 이렇게 세우고 거기다 제를 올려 드리고, 그 제물을 갖고 올라가서 올라가다 보면은 지지대 고개 올라가다 보면은 효행 가는 막 지나면서 삼성 건설이 하기 위해서 공터 지금 남은 자리 거기에서...

조사자 : 효행 기념관 바로 전?

송명옥 : 예 조금 올라가서.

이봉회 : 응 조금 못 올라가서. 거길 작은 고개라 그러거던. 고개 이름이 작은 고개. 그 작은 고개 밑에 가서 거 역시 동, 서쪽으로다 끊고 절을 올리고 내려와요. 내려와서 다시 인저 제물을 차려 가지고 오후 여섯 시 경 썸 되면은 들고 올라가죠. 다 짊어지고 산에 올라 가서 제사를 모시고 내려와서 돼지 머리는 사각형을 잘라서 동네 제일 연세 많이 잡순 분, 남자 두 분, 여자 두 분 요렇게 한 쪽씩 드리고. 고기는 마을 동네 사람들 돈 내는 데로 한몫 내는 사람은 한 몫, 반 몫 내는 사람은 반 몫 해 가지구 몫을 똑같이 가립니다. 갈라 가지구 그 날 밤으로 산에서 내려 와 가지구 분배해서 나눠먹었죠. 그래도 그런데 약 한 십년 전부터 없어졌어요.

조사자 : 80년대 말에 없어졌어요?

이봉회 : 그렇죠. 80년대 말에 없어졌죠? 아마 올림픽 전제가 없어졌을 거예요.

송명옥 : 그렇지.

이봉회 : 87년도부터 안지낸 걸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제사 도구가 그릇 이구 축문이구 이 형씨가 관리를 했었어요. 했는데, 인저 한참을 안 지내기 시작하니까 그걸 갖다 보관하기두 어렵고 시나브로 다 없어지구.

조사자 : 지금 남아있는게 아무 것도 없어요?

송명옥 : 없어요.

이봉회 : 없어요.

조사자 : 축문도 없어요?

이봉회 : 죄다 없어졌어요.

조사자 : 그 장승을 만드는 방법이요. 그걸 자세하게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봉회 : 장승은 오리나무를 비는 이유가 연장이 잘받아. 말르면은 못도 안 들어가는데, 날 나무적엔 연장을 잘 받아요. 깎데기 까고...

송명옥 : 그래도 그 나무가 이런 나무 갖지 않게 깎으면 노래요.

이봉회 : 노르스름해지죠, 깎으면, 그 배 이렇게 쪽 깎고, 머리 부분 이렇게 인저 쪽 깎아서 인저 남지는 갓을 쓰니까 갓뿔을 끼고 얼굴을 그리고 밑에다 천하지대장군이라고 쓰고, 여잔 지하여장군이라고 쓰고, 그렇게 썼던 거예요.

조사자 : 이 장승 만들고 그럴 때 다른 행사나 그런 건 없었어요, 뭐 노래 부른다거나...?

송명옥 : 그런 건 없어요.

이봉회 : 그런 건 없어요. 진짜 그건 돼지 잡는다거나 쓰구 한쪽에서는.

송명옥 : 우스운 거 걸에두 산신제는 무척 정갈해요.

이봉회 : 그 떡을 해두요...

송명옥 : 제사 지내는 집두 집안에 부정이 없어야 돼요. 부정 있으면 차례 두 못가는 거야. 여자가

혹시 멘스한다 그래도 안돼요.

이봉희 : 그 생기 복덕이래는 거예요.

송명옥 : 그런 것도 가려야 돼지, 덮어놓고 아무나 더럽게 하든 안돼는 거예요. 이봉희 : 젊은 여자  
들이 될 수 있으면 없는 집을 택해서, 왜냐 그게 있으니까. 그게 있으니까 그렇구 대개 생  
기복덕을 딱 가려서 제수집을 정해놨다 그러면은 그 집에는 제삿날 저녁 전까지 아무도  
들어가질 못해요.

송명옥 : 문 앞에다가 황토 흙으로 사람 못 들어가게 해놔요.

이봉희 : 그리구 두부를 해도 콩을 넣어서 맷돌에 갈아서 써요. 공장꺼는 안 써요. 떡을 해두 떡 살  
을 담궜다가 남자들이 빠져 여자들이 치구 해 가지구 그 자리서 그 집에서 다 떡을 써서  
쓰고 떡모거리 하고 두부 비지 이거는 어디 들어가나 하든, 돼지 잡으니까 순대를 만들어  
야지 돼, 순대 속 넣는데 다 같이 껴서 들어가요.

조사자 : 올린 음식 중에 순대도 있었어요?

송명옥 : 저녁에 제사 지내고 와서 그 국물에 입가심들 하지.

이봉희 : 돼지를 생걸로 쓰질 않고 삶어요. 약간 삶어서 하니까 통돼지를 삶으래은 큰 솥이래도 몇  
번 삶아야 되거든, 그니까 진국이 나오지. 순대를 만들어서 삶고 그러니까 국물은 아주  
좋죠. 그거 내서주고 어떤 날은 눈이 썰 때도 있고 내려와서 따뜻한 국물 주면 막걸리 한  
잔씩들 잡숫고...

송명옥 : 제사 지낸 음식이 기막히게 맛있어요.

이봉희 : 지내는 거는 떡하고 돼지고기하고 과일, 옆에 사과, 감, 대추, 밤 하여튼 오색 과일은 보통  
가정집 제사는 고사지내는 거 다 지내요. 복어는 통복얼 쓰고, 거 아까 있던 염새나 셋이  
서 음식 준비를 다 하고...

송명옥 : 제사 지내는 덴 저깅(저가락)도 안 써요. 그 찢라서 쓰는 거요.

조사자 : 수저도 안 쓰고요?

송명옥 : 새 그거 잘라서 그거 쓰고요.

조사자 : 갈대 같은거요?

송명옥 : 예.

이봉희 : 그걸 잘라 가지고 그걸 쓰죠.

조사자 : 산신제 지내는 절차는 어때요? 처음에 딱 올라가면은...

이봉희 : 올라가면은, 올라가기 전에 그 서낭이 있어요, 서낭에다 잔을 한 잔 올리고, 올리는 동긴  
뭐냐, 토지지신이니까, 우선 땅을 보호하고 있는건 서낭이니까, 우선 토지에다 먼저 잔을  
한 잔 올려야지요. 그 시루가 두 시루가 올라가요. 서낭 시루가 따로 있고, 산신 시루가  
따루 있고, 제물도 두 가지를 차리죠.

송명옥 : 제사지내는 데선 이런 술을 쓰질 않아요. 쌀루 누르고 가려서 내일 해은 새벽에 집에서 해서 갖다 새벽에 갖다 아침에 갖다 묻어요. 안에다가 저녁에 채를 걸러서 예, 그렇게 지내는 거지. 술을 사다 쓰고 그런 건 없어요. 서낭 이런 데는 막걸리를 돌리지만 그 산신은 거 저...

조사자 : 올리는 제물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서낭 올리는 건...

이봉희 : 서낭 올리는 거는 주로 머리, 목살을 띠어서 쓸어서 대접에 놓고 또 이 저기에는 장승에는 간을 씹니다. 밤 대추 과일은 다 쓰는데 떡두 놓구 그런데, 주로 쓰는 것이 간, 목, 줄고기 몇점, 서낭에는 저걸 쓰고, 산신에는 돼지 다리, 사각 뜯 거, 그대로 앞쪽 둘, 뼈도 안 바른 거, 앞다리 둘, 뒷다리 하나, 그러니까 돼지 하나 잡아서 몽땅 다 가는 거요, 다. 뒷다리 하나만 안 올라가고 다 올라가요.

조사자 : 왜 뒤쪽 한 쪽은 안 쓰는 거죠?

이봉희 : 그 이유가 노인네들이 말씀하시는데, '원래 제일 이 저 돼지를 잡으면 다 써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옛날부터 소를 잡았었는데 말하자면 다 지고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한쪽은 냅겼었다.' 그래요. 그런 말씀들 하시니까 우린 그거에 따르는 거지 뭐, 알 수 있습니까, 거.

조사자 : 그러니까 옛날에 소 잡다가 돼지로...

이봉희 : 그렇죠. 돼지 잡다가 어떨 땐 소도 잡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점 점 소 잡고 뭐하기가 번거롭고 금전 출납하기가 힘들고 그래 마을에서 지도자급들은 당고사 열흘 전서부터 호호 방문하면서 이번 당고사 참석을 해줄거나 안해줄거나 확인을 받아요. 확인을 받고 제사이틀 전날 농사짓는 집에서 쌀을 한 뒷박이고 두 되고 쌀 좀 주시오 그러면 얼마 준다 안 준다 이런 게 없어요. 자기가 한 뒷박 퍼주고 싶으면 한 뒷박 퍼주고 두 뒷박 퍼주고 싶으면 두 뒷박 퍼주고 농사 좀 많이 짓고 그런 집에는...

송명옥 : 쌀 걸으러 댕길 때두 자루 두 개요. 부정 있는 집 쌀 따로, 부정 없는 집 쌀 따로. 부정 없는 집 쌀로다 거기 다 가는 거지 부정 있는 집 쌀은...

이봉희 : 부정 있는 집 쌀은, 거 부정 없는 집 쌀로 당고사 가고, 부정 있는 집 쌀은, 거 아침부터 모여서 하니까 점심을 해먹어야 되고, 또 저녁도 산에서 내려오면 시장들 하니까, 저녁도 한술씩 떠야되고, 그래 국물에다가 한술씩 뜨라고 밥을 하고 그래요.

송명옥 : 그렇게 정갈해요, 산제사래는게, 그렇게 정갈하고. 그 저 옛날 노인네들 얘길 들으면은 그 전에 산제살 지내다가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서 안 지내고 그랬대요. 안 지냈는데 동네가 우환이 자꾸 퍼지고 저녁이면 그냥 산신령님이 와서 동네 돌아 댕기구 그래서 다시 지내구 그러니까 그런 게 싹 없어졌다는 거여.

조사자 : 그 산신령님의, 산신에 얽힌 얘기들 전해 내려오는 건 없어요?

이봉희 : 축문에 저 이걸 해석해보면은 호랭이한테 올린거여, 호랭이한테, 호랭이를 위한 거여, 호랭이.

송명옥 : 안 지내든 동네에 와서 막 돌아 댕기구.

이봉희 : 그 축문을 지금 오래 되서 잊어버리구 원본도 없어지구 그랬는데, 우리가 매년 때되면 읽고 들어보면 호랭이를 위한거여.

송명옥 : 소지를 올리는데, 집집마다 하루씩 지관인가 그래 갖고서 맨들었는데, 아무개면 아무개 일년 열 두 달 잘 사고 없이 그게 인저 찍어 불래면 아우 참...

조사자 : 그 이름을 마을 당고사라고 불렀어요? 부르길 뭐라고 불렀어요?

이봉희 : 당고사쇼. 당을 지었으니까 당고사. 당주니 제관이니 축관이니 이렇게...

조사자 : 당주, 제관, 축관. 당주는 그렇게 준비하는 분이고, 축관은 읽는분, 제관은 절하고 그러면은...

이봉희 : 다 지내고 마을 호호마다 다 명단이 있으니까. 명단을 옆에서 인제 축관이 읽으면 제관이 소지를 올리죠. 축원을 하지.

조사자 : 그 한번 희미하게나마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면?

이봉희 : 기억이 잘 안나요.

조사자 : 어떤 내용이 있었나. 그 축 그러면 처음에는 그러잖아요. 유세차 뭐...

이봉희 : 물론 시초야 이 가정집 시제 모시는 축이나 똑같은 걸루 날짜 그거야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 거 호랭이한테 올리는 글이라는 건만 기억이 나지, 그 어떻게 그건 기억이 안나요.

조사자 : 왜 장승을 만들어서 모셨을까요?

이봉희 : 장승은 맨든 이유는 마을에 고사가 있을 적에는 부정한 사람이 드나들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마을 입구예다가 아래 위 입구예다가 부정을 막는거지. 우선 부정을 막기 위해서 먼저, 일단 부정을 막어야...

송명옥 : 나쁜 일을 못 들어오게 장승으로 막아논 데는 거야.

이봉희 : 지금 어느 부락이든지 장승 만들어 놓 것이 마을을 지켜 달라고 맨든 것이거든. 딴 뜻은 아니예요. 우리는 알기도 그렇게 알구 있어요.

조사자 : 그러니까 장승이 남쪽, 북쪽에 있던 게 다 길 양쪽에 있었던 거죠?

이봉희 : 네.

조사자 : 옛날 역사책에 보면, 저 지지대 고개예요, 정조 대왕 때 고개 마루에도 이렇게 장승이 하나 있었다고 그러던데...

송명옥 : 고개 너머 서낭이요, 거가서 지내던 거 있었지요. 고개 너머서자 마자, 소나무 있었죠. 거기다가...

이봉희 : 그 소나무가 도로 확장공사로 옮겨서 죽었죠.

조사자: 장승 같은 건 없었고?

이봉회: 서낭만 있었어요. 어서 지냈냐면, 의왕서, 의왕쪽. 고개 너머 골짜구 사람들이 지냈는데, 그 나무에다가 지내고, 고 옆에, 각시당이라고 있었어요.

조사자: 의왕이죠?

이봉회: 각시당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거는 골짜구 사람들이구, 우리 마을은 고개 이쪽에서.

조사자: 지지대 고개 거기에 정조 대왕이 여기서부터 광주가 끝나고 화성시작이다 해서 이정표 세우고, 장승 하나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봉회: 장승이 있는 건 우리가 본 기억이 없고, 하마(下馬) 지역, 돌루다 가 크게 있었는데, 말을 타고 넘어 가지 말라 그거야. 하마 지역, 그건 있었어요. 그것이 칠 십 사 년도 안양-수원 산업도로 뚫는바람에 없어졌죠. 고기 정조 대왕 비각집이 있잖아요. 비각집 바로 고 계단 밑에 길 앞에다 세웠었어. 하마 지역이라고.

조사자: 판소리 변경쇠가에 보며는 우리나라 유명한 장승들, 팔도에서 ... 거기에 지지대 고개 장승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미륵당 마을이나 이 근처에 장승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는데, 다행이 미륵당 마을 에 있다고 그래서...

송명옥: 대대로 내려왔던 건데.

조사자: 혹시 따로 장승이 있었는가, 아니면 이 미륵당 마을 장승을지지대 고개 장승이라고 그러는가?

송명옥: 응

이봉회: 지지대 고개에 세워놨으니까.

이봉회: 옛날에는 서울이나 안양 사람들이 모두 걸어대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구월 그믐날 동네에 들어와 시월 초하루 날 제사가 지내구 나야 밤중에래도 나가지 그 안에는 못나가. 그렇게 엄하게 했었는데. 이게 시대가 자꾸 바뀌니까. 그것이 조금씩 약해지고, 당고사모시는 것도 간소화되고 간소화되고, 끝에는 몇이 돼지 잡을 수가 없으니까 돼지 머리만 사다 놓고, 우리끼리 한번, 몇몇이 지냈었어요. 한 이년.

조사자: 그때도 장승도 만드셨어요?

송명옥: 그렇죠. 다.

이봉회: 그렇죠.

송명옥: 제사 지내면 미군들이 와서 사진 찍어가고 많아요.

이봉회: 장승은 오후 두 시만 넘으면 장승을 지내거든요. 이 아래가 지내고 위가 지내구, 그러면 한 시간 반 걸린다구. 그러니까 두 시가 넘고 세시쯤 되면 지낸다구, 아래 위를.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사진도 찍구, 그랬었지. 미군들은 장승 기껏 세워놓으면, 장승을

뽑아다가 어깨에다 미구, 빼서, 그럴 수도 있는거니까 이해가 되지요. 그 사람들이야 처음 보구 이상하니까.

이봉희 : 아주 옛날에는 시월 초하루 날 대개 인저 고사를 모실라고 날짜를 잡고 당주를 뽑았는데, 동네에서 벨안간에 초상이 났다든가, 무슨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적에는 다시 물렸대요. 다시 물려 가지구, 부정이 있으니까 못 모시고, 응, 일주일 후에 다시 날을 잡어서, 제사를 지냈다구.

수원시 미륵당 마을 장승제 조사 보고서

---

---

2001년 4월 20일 인쇄

2001년 4월 25일 발행

발행인/김종기

발행처/수원문화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3가 산 2-1번지

031) 244-2161

책임조사·집필: 허용호

보조조사 : 김정경

---

---

〈비매품〉